

KB증권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투자 전 설명서 및 상품설명서, 청약 일표, 청약보증금 상 보호상품 안내, 청약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
> 신용등급(투자가능)에 따른 청약순위(예) 또는 청약 가능 기간 및 투자 가능 상품에 대한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A++ 등급 *A~A++ 등급 투자 가능 *A~A++ 등급 투자 가능

제3361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6주 남은 21대 국회... 민생법안 폐기 수순 밟나 4

전략경영학회 "CVC, 규제 풀어야 혁신 빨라져" 12

코스피(12일 전주대비)	코스닥
2681.82 (-32.39P)	860.47 (-11.82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1375.40 (+22.60원)	3.403% (+0.074%p)

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 세계경제 '폭풍전야'

중동 확산 위기 최고조

영사관 피격 12일 만에 보복나서 드론·미사일 동원 대규모 공습 美·유럽 등 국제사회 일제히 규탄

이스라엘, 가자지구 총력전 예고 인플레이·증시 폭락 등 혼란 우려

이란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그간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이란이 감행하면서 세계 안보와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1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란은 1일 벌어진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자국 영사관 피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전날 저녁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했다. 동시에 레바논에서는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골란고원을 로켓포로 공격하며 이란을 지원했다. ▶관련기사 2·3·21면

이스라엘은 자체 방공망과 전투기 출격으로 이란 공격에 맞섰다. 전역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고, 예루살렘에선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란이 밤새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한 직후인 14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 있는 영국 대사관 앞에 시위대가 모여 이란 국기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공격을 지지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을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전날 수백 기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동 지역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어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한편 이스라엘에는 반격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테헤란/AFP연합뉴스

일 300여 발을 발사했다"며 "발사체 중 99%가 우리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10세 어린이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1979년 이란에 지금의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진 후 처음이다. 이란 외교부는 공습

시작 후 성명에서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시온주의자 정권의 공격에 대응했다"며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권이 팔레스타인과 그 정권에 대해 불법적이고 대량학살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란의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

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EU),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란의 보복을 규탄했다. 특히 12일부터 이란의 보복을 경고했던 미국은 영국과 함께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양국 전투기는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에서 이란 드

론 일부를 격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동같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란은 이번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다.

이란의 공습이 휘몰아친 후 이날 오전 7시 30분 이스라엘 당국은 대피 명령을 해제하고 영공을 다시 열었다. 영공 폐쇄 7시간 만이다. 이란의 추가 공습과 이스라엘의 반격 가능성이 남아 있어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가 휴전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해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며 가자지구 총력전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들을 소집해 화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세계 경제와 시장도 긴장감이 휩싸였다.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고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으로 세계 핵심 석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최대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증시 폭락 등 시장 혼란을 유발해 경기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국내 10호' 종투사 탄생 앞뒀지만... 질적성장 '실종'

(종합투자회사)

스페셜 리포트

업계, 자기자본 148% 증가 불구 단기수익 매몰... 글로벌 경쟁력 미미

한국 자본시장이 열 번째 '한국판 스톡홀드만삭스'(종합투자회사)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투자은행(IB)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초대형 IB' '메가뱅크' 육성 구호가 나오는 지 오래지만, 한국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골목대장'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상반기 중 종합투자회사(종투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3월 말 상환전환우선주(RCPS) 437만2618주를 발행, 운영자금 2300억 원을 조달하면서 종투사 자금요건(자기자본 3조 원)은 갖췄다.

대신증권은 본사 사육 매각도 추진 중이다. 대신증권은 최근 NH아문디 자산운용 등에 투자설명서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재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초대형 IB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다. 초대형 IB 인가 기준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이다. 이어를 대신파이낸셜



그룹 회장은 올해 내부 신년사를 통해 "그룹의 올해 전략목표는 증권업의 자기자본 4조 원 달성"과 초대형 IB로의 진출"이라고 강조했다. 초대형 IB를 향한 도전은 양홍석 대신파이낸셜그룹 부회장과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가 맡아 진두지휘하고 있다.

교보증권도 자기자본을 확충하며 종투사 진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보증권이 3연임에 대한 부담에도 박봉권 대표를 다시 자리에 앉힌 것도 종투사 진입에 대한 강한 의지 때문이다.

박 대표는 올해 종투사 도전을 목표로 △스케일업(Scale up)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뉴비즈니스(New business) 등 3대 전략방안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교보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1조8773억 원이다. 종투사 기준까지 아직 1조 원가량 부족하다. 증권업계에서는 교보증권

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확충에 나선 것으로 본다.

시장에서는 새 종투사의 '메기효과'를 기대한다. 현재 종투사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등 9곳이다. 국내 금융사들은 외형이나 내실 측면 모두 '우물안 개구리'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9개 종투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2012년 말 22조1000억 원에서 2022년 말 54조8000억 원으로 148% 증가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들의 최근 10년간 자기자본증가를 0~50% 내외보다는 높지만, 덩치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종투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보증,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사업 등 단계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고위험 사업에 집중하면서 질적 성과는 미흡하다"며 "2013년 종투사 제도 도입 당시 목표로 했던 사업 차별화, 기업금융 서비스 확대, 모험자본 공급, 글로벌화 등 측면에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유가·공급망 관리시스템 가동"

尹,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 "리스크 철저히 점검... 신속 대응 역내 국민·기업 안전대책 마련하라"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해달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방과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정부는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외 금융시장과 원자재 수급·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관련기사 8면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 간부들과 '대외경제 점검회의'를 별도로 열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관계기관 협업과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긴밀한 공조하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필요시 적기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경대한 기자 vishalist@

이란 미사일에... 코인 금가고, 유가 불탔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중동 지역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비트코인의 폭락은 주식, 원유 등 전통적인 시장의 재개에 앞서 잠재적 분위기를 파악하도록 경고등을 켜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보복공습이 주말에 이뤄진 만큼 금융시장에 곧바로 충격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락이 향후 자산시장의 여파를 예고한다는 뜻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이란의 보복 공습 개시 소식에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하면서 7.7%나 급락했다. 이는 작년 3월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당초 6만6000달러대에 머물렀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20여 일 만에 6만2000달러선을 내주기도 했다.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낙폭을 줄이면서 한국시간 14일 오후 5시 50분 현재 6만4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전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한 주 동안 약

글로벌 금융시장 '아수라장'

비트코인 7.7%↓... 이더리움 등 줄하락
"호르무즈 봉쇄 시 유가 130달러로 급등"
다우지수, 작년 3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

2.3% 내렸다. 이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있었던 작년 3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S&P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전주보다 1.56%, 0.45% 밀렸다. 주식 매도세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고조로 인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마켓워치는 내다봤다.

국제유가는 전날 장중 한때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 6월물 가격은 전날 각각 0.75%, 0.8% 상승 마감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장중 한때 배럴당 87.67달러,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

중동 정세는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특히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이란이 가자지구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원유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룩터펠터토이즈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현재 유가에는 이미 5~7달러 정도의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내재해 있는데, 위험 프리미엄이 배럴당 5~10달러까지 상승해 유가가 일시적으로 100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값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고공 행진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6월 인도분 금 현물 가격은 장중 한때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400달러를 돌파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그룹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보다 금을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더 나은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 혼란은 한층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서 'MSC(지중해 해운) 에리즈' 컨테이너선을 나포했다. 이 선박은 이스라엘 재벌 애알 오페르가 소유한 조디액그룹 소속이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래피던그룹의 밥 맥널리 시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주요 원유 교역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최대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요르단 수도 암만 상공에서 14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로 쏘아올린 드론들이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암만/로이터연합뉴스**



이란·이스라엘 최신 분쟁 일지



1일	이스라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미사일로 공격.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간부 사망
2일	이란, 이스라엘 보복 천명
5일	네타냐후, 이란 위협에 맞대응 경고. 이스라엘군 휴가 중단, 예비군 동원
7일	이란, 이스라엘 해외 주재 대사관들에 경고
12일	미국, 이란 공격 임박 시사
13일	이란, 이스라엘 본토 타격

* 출처: 블룸버그

'군사우위' 이스라엘 vs '대량무기' 이란... 전 세계 5차 중동戰 우려

오랜양속이던 이란과 이스라엘은 4차 중동전쟁이 벌어진 후 수십 년간 서로의 본토에 직접 타격하는 방식만큼은 피해왔다. 공격하더라도 이란은 친이란 대리인을 통하는 방식으로 확전을 피했고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 내 병력과 시설을 타깃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날 초 발생한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피격으로 모든 게 뒤바뀌었다. 이란이 자국 영사관 피습에 대한 보복으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처음으로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5차 중동전쟁 발발을 우려하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는 이들의 갈등이 어디까지 나아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군사력에서 이란을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

이란 추가 공격·이스라엘 반격 수위 관심
바이든 "對이란 어떤 반격도 반대"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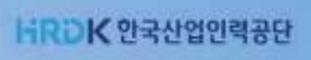
되고 있지만, 이란도 싸고 효과적인 무기를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어 양국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상황은 견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물리적 충돌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블룸버그는 이란이 다시 시리아나 레바논 대리인을 통해 움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2018년 이란은 미국과의 핵합의를 탈퇴한 후 이스라엘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골란고원으로 로켓을 발사한 전력 있다. 당시 로켓이 발사된 지점은 시리아였다. 이번에도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과 함께

레바논 헤즈볼라가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군기지를 로켓포로 공격하며 이란을 지원했다.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반격할지도 관심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을 규탄하면서도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반격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직접 타격이 아니더라도 갈등은 심화할 수 있다. 사이버 전쟁이 대표적이다. 이미 이스라엘과 이란은 10여 년 전부터 해킹과 악성코드 발송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최근 들어 전 세계 사이버 공격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고대명 기자 kodae0@**

2024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신청기간: 2024. 4. 22.(월) ~ 5. 3.(금)

신청업종: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포함)

* 고용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외국인/고용주에 관한 외국인 구인노력(7급)을 거쳐야 합니다.
* 신청 일련, 절차 관련 상세사항은 홈페이지(www.eps.go.kr 또는 www.work24.go.kr) 공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에서 신청 가능

*** 세부 일정**

- 신청서 접수: '24. 4. 22. ~ 5. 3.
-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24.5.21.
< SMS 문자 및 EPS홈페이지 >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조선업 → '24.5.22.~5.28.
농축산업, 서비스업(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포함),
건설업 → '24.5.29.~6.4.

환율 고공행진, 외국인 2.7조 매도... 금융시장 살얼음판

(4월 코스피200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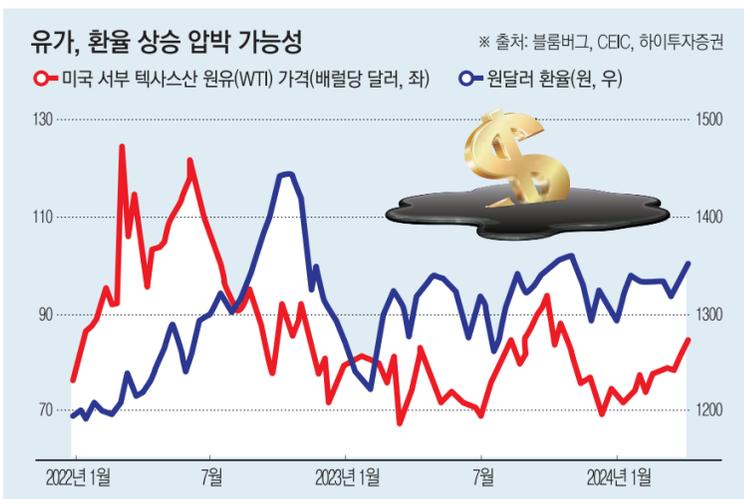
원달러 17개월 만에 최고 수준
국제유가 급등에 무역적자 우려
달러 빠져나가면 환율 상승 압박

위험자산 코스피 매력은 떨어져
“달러·현금 올해 최고 안전자산”

금융시장에 ‘5차 중동전쟁’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확산 상황에 놓인 4월 들어 9거래일 동안 외국인 코스피200 선물을 2조7000억 원 어치 팔아치웠다. 시장 전문가들은 아직 지켜보자는 분위기지만 중동 확산 여파가 물가와 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 및 추가 긴축 가능성, 미국 내 정치적 불안정 등 어두운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어 금융시장은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가 더 오르면 국내 무역수지 적자폭도 커질 수 있다.

◇‘중동 리스크’에 살얼음판 =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14포인트(0.93%) 내린 2681.82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해진 가운데 기관이 8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면서 2700선이 다시 무너졌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금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터진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자산의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 속에 터진 중동지역의 리스크는 유가 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



시 자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기준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 유지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는 미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 요인이다.

미국 6대 투자은행(IB) 제프리스(Jeffries)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달러화는 연준의 매파적 움직임 등 강세요인이 넘쳐난다”고 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동 국가 전체가 전쟁에 말려들어 세계 석유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급등 추세다. 12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 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0.71달러(0.79%) 오른 배럴당 90.45달러로 마감됐다.

같은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2448.8달러로까지 오르며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이는 고회율·고금리 상황에 놓인 한국 경제에 ‘얹힌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당장 원유를 수입해 써야 하는 한국으로선 원유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서 무역적자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 무역 적자로 국내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면 원화 하락(환율은 상승) 압력이 가해지면서 국내

물가가 덩달아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유가가 90달러(WTI)대까지 상승하면 물가 불안이 재연될 수 있고, 미연준의 6월 금리인하 기대감을 약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가 상승은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수입물가를 올려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리스크”라면서 “특히 연고점을 경신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달러 강세, 외국인 이탈 부추길까 = 중동 확산은 달러 등 안전 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 요인이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3원 오른 1375.4원을 기록했다. 증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동전 확산에 따른 추가 달러 강세를 걱정한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200 선물을 1조2469억 원 어치 순매도했다. 1월 3일 1조4738억 원 어치 순매도한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선물 순매도 규모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높은 경제 회복력을 보이며 기준금리인하 기대감이 연초 대비 크게 후퇴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6월 첫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진 점도 달러화 상방 위험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ECB의 피벗(6월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에 더해 중동 불안은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환율의 하방 경직성과 외국인 수급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금리 장기화,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달러와 현금이 2024년의 안전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

정유주 활활... 하락베팅 개미 ‘젯빛’

올 에쓰오일 13%·흥구석유 96% ↑
“정유사 실적 추정치 가파른 상향”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자 투자자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정유주들 산 개미들은 웃고 있지만, 유가 하락에 ‘베팅’한 개미들은 얼굴이 젯빛으로 바뀌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64달러(0.75%) 상승한 배럴당 85.66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0.71달러(0.79%) 오른 배럴당 90.45달러로 마감됐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 국영 TV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범죄에 대응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공군은 수십대의 드론과 미사일로 시오니스트 정권 영토의 특정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JP모건체이스는 “올해 8~9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여름 지정학적 긴장과 석유 수출국기

구(OPEC) 감산 등을 들며 유가가 배럴당 95달러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올해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유주도 강세를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Oil(에쓰오일)은 올해 들어 이달 12일까지 12.93% 올랐다. 흥구석유와 한국석유는 각각 96.38%, 43.76% 급등했다. GS(6.85%), HD현대(6.84%) 등도 강세였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가 상승과 공식판매가(OSP) 약세, 정제마진 강세 등을 감안할 때 올해 3월 중순 이후부터 정유사 실적 추정치는 가파른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며 “2분기 중 정제마진 개선 여부에 따라 추정치는 추가 상승될 것이며, 정유업 모멘텀은 2분기 가장 강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가 하락에 ‘베팅’한 개인투자자들은 좌불안석이다. ‘KODEX WTI원유선물 인버스(H) ETF’(개인 올해 190억 원 순매수)와 ‘TIGER 원유선물 인버스(H) ETF’(30억 원) 가격은 올해 들어 각각 14.7%, 15.6% 내렸다. WTI 원유 선물을 역방향으로 2배 추종하는 ‘삼성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ETN’(250억 원)은 23.6% 내렸으며, ‘신한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ETN(H)’(50억 원)과 ‘한투 블룸버그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ETN’(10억 원)도 각각 29.0%, 24.9% 추락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에너지 절약

- ① 사용 않는 조명 끄고 플러그 뽑기 (0.6kWh/일)
- ②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 (0.5kWh/일)
- ③ 냉장실 50% 비우기 (0.3kWh/일)
- ④ 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1.1kWh/일)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6주 남은 21대 국회... 규제혁신·민생법안 '폐기수순' 밟나

98건 법안 상임위 계류중

업무휴업 완화·비대면 진료 등
野 압승으로 尹 국정과제 '흔들'
민주 '채상병특검법' 추진 올인
경제·민생법안 후순위 밀려날 듯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해 민생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상황이다.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규제혁신 법안

-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 의료법(비대면 진료 제도화)
-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기본법)
- 단말기유통법(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 스크리닝 제도 단계적 도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벌을 하향)
- 방송법(유료방송 규제개선을 위한 방송법·IPTV법 개정)
- 직업안정법(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결격사유 합리화)
- 자본시장법(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국가재정법(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의 합리적 조정)
- 저작재산권(빅데이터 관련 저작물 이용 편리화)



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의 업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

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기술개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AI 관련 가장 최근 발의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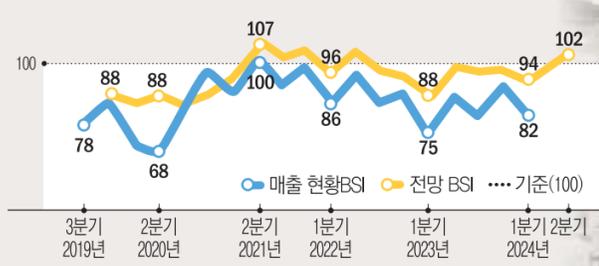
(윤두현 발의)로 통합해 입법을 추진해 왔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 (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벌을 하향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들도 높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고 2월 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야당이 반대해 예정대로 시행됐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어 현재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원전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연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곤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안이 2시간 40분 만에 '땡처리'로 통과됐다. 다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가 쟁점을 다뤄왔던 각종 경제·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국내 제조업의 매출 현황 및 전망 BSI 추이



2분기 제조업 '맑음'... BSI지수 2년 만에 최고

올해 2분기(4~6월) 국내 제조업 상황과 매출 전망이 2022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이차전지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화학 등 다수 업종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평가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1~22일 제조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상황과 매출 전망치가 각각 100, 102로, 기준선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와 비교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경기 악화 전망을 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분기 상황 및 매출 전망치는 2022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산업연, 경기실사지수 조사

이차전지·자동차·디스플레이 등 기업, 다수 업종 매출 개선 전망
물가상승·수요둔화 등 악재 지목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지원 희망

특히 상황 전망이 1분기(90)보다 10포인트 개선되고, 매출액 전망이 같은 기간 8포인트 높아지는 등 부문별 조사에서 증가폭이 컸다. 이밖에 내수(1분기 94→2분기 101), 수출(95→102), 자금사정(88→95), 경상이익(92→97), 설비투자(97→99) 등 모든 부문이 전 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매출 전망치를 유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1분기 91→2분기 102)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소재 부문(95→102), 기계 부문(96→102), 신산업(101→105) 등 전 부문이 모두 개선되며 기준선

을 웃돌았다. 주요 업종별로 보면 정유(89→104), 무선통신기기(92→106), 반도체(87→99), 이차전지(103→113) 등의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제조업 유형별로는 대형업체(102→111)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특히 높았고, 중소기업체(94→101) 역시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환경영향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요인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가중(57%)을 꼽았다. 이어 수요둔화·재고 누증(39%), 고금리·자금난(36%) 순으로 집계됐다.

또 '생산비 부담 가중' 응답 비중은 지난해 2분기(69%)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대외 불확실성 지속'과 '공급망 불안' (29%)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24%)보다 높아졌다.

정부 지원 희망 사항으로는 '금리인하 등 경기 부양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투자 지원'이 많았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총선 끝나니 '전기·가스 청구서' 정부, 인상 여부·시기 '저울질'

5월 1일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

가스수요 적은 여름철 인상 가능성
'전기요금 현실화' 거론해온 정부
물가·경기 등 종합해 판단 내릴 듯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도 전망되고 있다.

14일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 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 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하게 돼 있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 자로 조정된다. 철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5월 이후 동결해온 가스요금의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우선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지난해 말 13조7000억 원으로 불어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일종의 '외상값'으로 정부에 기록해 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이를 판매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손실은 연결 기준 7474억 원으로, 미수금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규모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금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물가상승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적자가 누적돼 온 탓에 한전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02조 원에 달한다. 한전은 그동안 한전체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틀어막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줄곧 거론해왔다. 이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월 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與, 새 비대위냐 조기 전대냐... '당권' 놓고 신경전 돌입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무주공산'인 당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됐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복수의 관계자들은 "누가 당권을 잡을지 모르겠다", "대통령실과 당이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했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108석 의석 확보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다 다음 지방선거·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하면 당을 누가 이끌어갈지 구심점이 안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16일 열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거란 전망이 크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거취부터 전당대회를 열지, 비대위 체제로 갈지가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선 전당대회를 통해 당을 재정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전당대회를 하면 컨벤션 효과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할 수 있다. 이미 비대위 체제를 겪었기에 '비대위의 비대위 체제'를 만들 가능성은 작다는 게 당내 주된 분위기다.

'총선 패배 책임' 비대위 무용론
조기 전대 통한 재정비에 힘쓸려

차기 당권주자에 나경원·안철수
협치서 승리한 김재섭도 후보군
한동훈 위원장 재등판 가능성도

문제는 윤 권한대행의 거취인데, 본래 임기대로 21대 국회 만료 시점인 5월 29일까지 권한대행을 수행하면 22대 국회 개원 후 새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7~8월께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언급된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 임기 종료 전에 당선자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며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빠르게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해 당을 안정시키려 할 것"이라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로는 수도권 중진인 나경원·안철수 당선자 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의석이 영남권으로 쪼그라든 만



14일 국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실 앞 계사판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당시 공약 등을 담은 게시물이 붙어 있다.

큼 수도권 출신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당분간 친윤이 전면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의 합치인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자의 대표권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2021년 헌정사상 첫 30대 이

준석 전 대표를 선출해 변화를 꾀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다. 다만 김 당선자는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의 활약 가능성은 오리무중이다. 총선 전까지는 김기현 전 대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순으로 친윤에 당권이 넘어갔다.

이철규·권성동·윤한홍·김기현 등 친윤의 원들이 대거 생환했지만, 이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말핵관' (말어진 윤핵관) 권성동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은 언급된다.

물러난 한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도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그는 13일 새벽 당직자·보좌진에 "제가 부족했다"며 "우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 그래도 힘내자"고 했다. 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했지만, 향후 정치 행보 가능성은 열어둔 바 있다. 그는 11일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 인사들은 총선 패배를 대통령 책임론으로 돌렸다. 김경열 비대위원장은 10일 총선 참패를 "대통령과 당의 공동 책임"이라고 했다. 다만 유의동·구자룡 등 한동훈 지도부 인사들이 낙선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당내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민주당 '특검법' 시동... "尹대통령 거부 말라"

"채상병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
거부권 땀 국민이 가만 안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채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의

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짊어 눌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말썽한 사람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대사로 피신시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제차 특검법을 촉구하며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안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라고 하는 민의가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민의를 저버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집권 여당 의원들도 전부 다 민의를 알기 때문에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졌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인 경우 최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다. 지난해 10월 6일 기준으로 180일이 되는 시점은 4월 2일이었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에 언제든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영인 기자 oin@

파란 깃발 꽃힌 수도권 '메가시티 서울' 제동?

野당선자 대부분 부정적 입장

22대 총선에서 김포와 고양, 구리,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석권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메가시티 서울'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이 과반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이 정책 경쟁보다는 서로에 대한 심판을 내세웠던 만큼 메가시티와 같은 거대 공약은 탄력을 받기가 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메가시티 후보지역에서 편입을 반대했던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선거 이전 김병수 김포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오세훈 서울 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 김포·고양·구리, 의왕·과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된 후보들 대부분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민주당 김주영 김포시장 후보와 박상혁 김포을 후보는 지난해 11월 5일 '무늬만 서울'은 안된다며 교통을 우선시하자는 공동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얼마나 호응하는지에 달렸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월 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 21대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도록 해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정치 초년생, 홀로 대권놀이"... 한동훈 때리는 홍준표 속내는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연일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홍 시장이 입지 다지기에 나섰다 해설이 나왔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해 그 막중한 총선을 치른 것"이라며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 놀이나 한 것"이라며 한 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교체도 해주지 지방선거도 대승하게 해주었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건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셀카만 찍다가 총선 말아먹었다"
'참패 책임' 연일 강도 높은 비판
'차기 대권주자' 입지 다지기 분석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12일 "천신만고 끝에 탄핵 의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감당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감당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들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30여 년 보낸 이 정당이 날지 못하는 새로 또 전략하고 있는 게 아닌지 참 안타깝다"고 했다.

홍 시장의 한 전 위원장 비판은 하

루, 이를 일이 아니다. 그는 총선 도중에도 한 위원장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4일 "총선 이기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 못 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에 무슨 '짚썰매(짚지만 잘 싸웠다)'가 있나. 총선 참패하면 용산과 갈등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무슨 열도 당도 않지도 않은 말인가"면서 "총선은 당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한 것이다. 공천 제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루 전인 3일엔 "일치기 좌파들이 들어와 당을 망치고 있다"며 "내가 한동훈 위원장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 잡는다고 하는데 윤 대통

령 임기가 2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 놀이나 하는 것이 어처구니없어서 참다 참다 못해 충고한 것"이라고 했다. 2일에는 "셀카 쇼만이 정치 전문가 아니다. 정치는 진심(眞心)과 진심(盡心)으로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홍 시장의 이 같은 발언들은 한 전 위원장이 여전히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는 기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됐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정치를 처음 해본 것도 있고, 자존심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실제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향후 정치 행보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관측이 짙다. 그는 11일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세상 모든 기술이 빛나는 무대 4만 명의 하이지니어로부터

세상에 빛이 되는 첨단 기술,
SK하이닉스인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3高에 중동리스크까지... 정부, 대내외 악재 긴급 점검

尹·최상목 긴급대응회의

상황별 대응계획 재점검 지시

국제유가 5개월만에 92弗 상회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전망
기준금리 인하 더 늦춰질 수도

중동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가 긴밀한 대응에 나섰다.

휴일인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각각 열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재점검을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최남호 2차관 주재로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에너지수급 및 가격, 수출입과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중동산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상대적으로 큰 충격과가해될 수 있는 데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 등 대외 악재가 자칫 펀더멘털(기초 여건)에 부담을 줄



중동 위기에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L)당 1750원을 넘어섰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6.3원 오른 리터당 1673.3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11.1원 상승한 리터당 1551.3원을 나타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 가격표. 고이관 기자 photoeran@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제유가는 일찌감치 상황 곡선을 타고 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압박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를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확전이 현실화한다면 이미 배럴당 90달러 선에 육박한 국제유가를 추가로 밀어 올리면서 '중동산 오일'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

국제원유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해협만 봉쇄되더라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가뿐히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

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고유가가 장기화한다면 정책당국의 거시경제 운용 기조도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당초 정부는 배럴당 81달러(두바이산)를 기준으로, 연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고유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을 부추기는 동시에 가뜰거나 부진한 내수 소비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역설적으로 소비 위축은 그만큼 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급 측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수요는 위축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경제 펀더멘털을 좌우하는 거시변수들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불거진 대외 악재라는 점이 부담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370원 선을 넘어섰다.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배당 송금을 비롯한 직접적인 수입 요인 못지않게, 글로벌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부각된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강(強)달러에 추가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물가를 자극한다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가격과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시장의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의대 정원 관련 브리핑 중단 의료계 "총선 패배, 증원 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이 중단된 상황에서 여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하자 정부는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중대본 회의 주재자는 월요일 복지부장관, 수요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요일 국무총리다. 복지부는 화요일인 9일과 목요일인 11일 중수본 회의를 열었지만, 브리핑은 하지 않

복지부 단독 의사결정 하기엔 무리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될 듯

았다. 금요일인 12일에는 중대본 회의를 중수본 회의로 축소하고 브리핑도 취소했다. 15일 예정된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 중대본 브리핑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 중대본 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다. 보고 라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복지부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메시지를 내놓기 어렵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선거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도 시간이 없다. 예정대로 5월 말이면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연내 공공기관장 공석 164곳... '총선 낙하산' 주의보

33곳 후임 인사 없이 빈자리
42곳 임기 만료자 자리 유지
89곳 올해 기관장 임기 종료
경력 무관한 등용 전례 많아

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연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이 1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3곳은 기관장 후임 인사 없이 빈자리로 방치돼 총선 낙선·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인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 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

석'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는 작년 12월 이삼걸 사장 퇴임 이후 아직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도 올해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기관장이 공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임기 만료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인 공공기관도 42곳에 이른다. 전체의 22%에 이르는 7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 낙선·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두고 수개월째 기관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은 데다 3년의 임기까지 보장된다.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작년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부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강원랜드 전 사장은 '총선 낙선자' 출신이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21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89곳도 조만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이

뤄질 전망이다. 상반기 중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0곳은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164개 기관장이 총선 낙선·낙선자들이 노리는 보은 인사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기관장과 함께 '정치인 낙하산'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박상현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장관 측근 등으로 확인됐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KTX 청룡, 1200명이 먼저 타본다

22일부터 25일까지 시승행사
15일 오후 1시 웹·앱서 선착순
기준보다 속도·통로 폭·좌석 수 ↑

내달부터 운행하는 차세대 고속열차 'KTX-청룡'을 먼저 타볼 기회가 생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달 첫 운영을 앞둔 KTX-청룡의 국민 시승행사를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하루에 한 번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일반 260명, 다자녀 40명)씩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

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으로 초청한다. 시승열차는 22일과 23일 경부선(서울~부산 왕복,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승차), 24일과 25일 호남선(용산~광주승정 왕복, 용산·익산·광주승정 승차)에서 총 8회 운행한다. 시승단은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승 희망 날짜와 구간은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참여자는 1인당 2장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 회원은 가족 수만큼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KTX-청룡은 100%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다. 최고 운행속도는 320km/h에 달해 2010년도 도입된 KTX-산천(최고 시속 300km



윤석열(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이 1일 대전역 승강장에서 열린 차세대고속열차 명명식에서 열차 공식 명칭인 'KTX-청룡'을 알리는 퍼포먼스에 참여해 기립박을 견어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보다 더 빠르다. 동력집중식 열차인 KTX-산천이나 산천Ⅱ와 비교해 좌석간 앞뒤 공간은 126mm로 20mm, 좌석 통로 폭은 604mm로 154mm 넓어졌다. 열차 8칸의 전체 좌석 수는 515석으로, KTX-산천 대비 136석(35.8%), KTX-산천Ⅱ 대비 105석(25.6%) 더 많다.

이름은 '청룡의 해'인 올해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높게 비상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 지었다. 한 문희 코레일 사장은 "청차역 인근의 이용자들도 시승할 수 있도록 했으니 많은 국민께서 KTX-청룡을 체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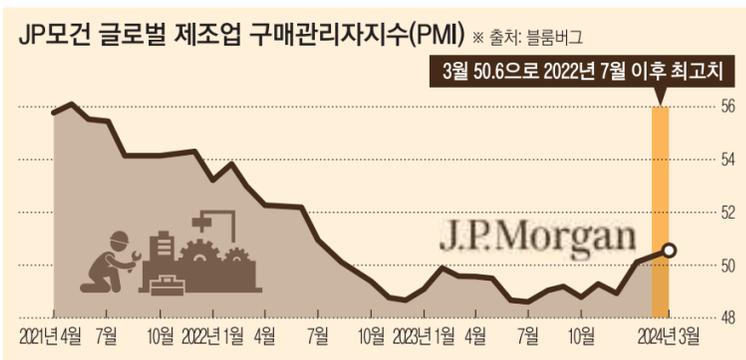
글로벌 제조업 깨우는 美·中... “최악의 상황 끝났다”

글로벌 PMI, 21개월 만에 최고 유럽·亞 등 수출 강국도 개선세 “반등보다 안정화... 전환점 될 것”

전 세계 제조업 경기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수년간 지속된 침체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자넷 무어 RBC브루인돌핀 시장 분석 책임자는 “미국, 중국, 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에서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가 다시 확장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동조화 특성은 글로벌 성장의 주기적 상승에 대한 좋은 신호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제조업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민간 지표인 차이신 PMI는 약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차이신 제조업



PMI는 51.1로 작년 2월(51.6) 이후 가장 높았다. 또 경기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 50을 5개월째 넘어섰다. 이는 약 2년 만에 가장 길게 경기확장세를 이어간 것이다. 중국 국가 통계국이 발표하는 3월 공식 제조업 PMI도 50.8로 반년 만에 처음으로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 제조업 PMI 역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지난달 미국 제조업 PMI가 50.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신규주문 증가와 생산량 확대에 힘입어 2022년 9월 이후 17개월 만에 깜짝 확장세를 기록한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의 미국 제조업 PMI도 석달 연속 50을 웃돌고 있다. S&P글로벌은 “지난달 공장 생산이 22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있는 고급 금속제품 제조회사 아르곤인더스트리의 그렉 클레멘트 사장은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며 “6개월 전만 해도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생산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 1·2위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 초기 회복은 글로벌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JP모건 체이스 글로벌 제조업 PMI는 지난달 50.6으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산업 생산 역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침체 극복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제조업 PMI도 지난달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경기 확장세를 나타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수출 강국들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중반부터 상품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크잔디 무디스에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제조업 강세는 세계가 경기침체를 피하고 성장 잠재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제조업 활동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적 인고금리, 유가상승, 공급망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완전히 되찾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도 “개선된 전망은 반등이라기 보다는 안정화에 가깝다”며 “역풍이 조만간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효선 기자 hsbun@

뜨거워진 美플로리다 ‘테마파크 大戰’

유니버설, 내년 ‘에픽 유니버설’ 개장 디즈니월드와의 거리 불과 16km 방문객 수·실적 등 정면승부 예고

유니버설이 테마파크 사업을 확장하면서 월트디즈니를 위협하고 있다. 테마파크 부지를 넓히고 해리포터와 슈퍼마리오, 미니언즈를 동원해 디즈니의 본거지인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디즈니월드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니버설은 내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네 번째 테마파크인 ‘에픽 유니버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기존에 있던 올랜드 리조트에 750에이커(약 3.04km²)의 면적이 추가되는 방식이며, 해리포터 놀이시설과 슈퍼 닌텐도 월드, 동키콩테마의 롤러코스터 등이 주요 시설에 포함됐다.

유니버설 대변인은 “고객들은 우리가 가진 브랜드와 관련한 몰입형 스토리텔링을 좋아한다”며 “우리가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면 그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에픽 유니버설 부지에서 불과 10마일(약 16km) 떨어진 곳에 디즈니월드가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라고 WSJ

는 강조했다. 디즈니월드와 같은 테마파크 사업은 디즈니 전체 사업 중 가장 큰 이익을 내는 분야로, 연간 수천만 명의 방문객을 맞고 있다. 특히 10년 동안 ESPN, 디즈니채널 등 TV 네트워크 사업 이익을 넘어서면서 전략적으로 더 중요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디즈니월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테마파크 확장 문제를 놓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와 2년간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최근에는 입장료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방문객들의 불만도 커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니버설이 디즈니월드를 위협하면서 지각변동이 전망된다. 시장 분석 업체 모베티에이션스에 따르면 에픽 유니버설로 인해 2025~2026년 디즈니월드 방문객은 약 1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신 플로리다주에 있는 유니버설 테마파크 3곳의 전체 방문객은 8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WSJ는 “보통 휴가 일정에는 디즈니월드 3~4일, 유니버설 1~2일이 포함된다”며 “이제 유니버설이 자신들의 공간에서 하루 더 보내도록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연간 수익 달러의 이익을 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호주 ‘문지마 칼부림’... 6명 사망

호주 시드니의 한 쇼핑몰에서 13일(현지시간) ‘문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날 한 남성이 쇼핑객들을 향해 무차별로 칼을 휘둘러 최소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 용의자는 대응에 나선 여성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앤서니 엘베니치 호주 총리는 “토요일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은 끔찍한 폭력 행위가 일어났다”며 “범인과 맞선 여성 경찰관은 확실히 ‘영웅’이다. 그가 여러 생명을 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시드니(호주)/EPA연합뉴스

일자리 찾아 해외로... 日, 젊은 노동력 이탈 가속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최대 20년 임금 동결·엔화 약세 등 영향 고령화에 中企 60% 이상 일손 부족

낮은 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 젊은이들이 고국을 떠나 해외로 향하고 있다. 엔화 약세로 외국의 높은 임금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 커진 탓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2~2023 회계연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일본인은 1만43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이후 최다 수치다. 같은 기간 뉴질랜드의 일본인 비자 승인 건수는 2404건을 기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캐나다 비자를 받은 일본인은 7996명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일본인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달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

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맹)가 30년 만에 최대 규모 임금 인상을 쟁취했지만, 선진국과의 실질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연평균 임금은 4만 1509달러(약 5750만원)로 집계됐다. 이는 호주(5만9408달러)와 미국(7만 7463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일본은행(BOJ)이 지난달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마이너스 금리 체제를 종료했음에도 엔화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것도 인력 유출의 배경이다. 엔·달러 환율은 최근 152엔을 넘어서며 엔화 가치가 1990년 6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호주달러 대비로도 엔화는 10년 만에 가장 약세를 보였다.

이토추경제연구소의 다케다 아쓰시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나라들이 임금을 인상하는 동안 일본의 임금은 20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았다”며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영

주권을 취득한 일본인 수는 1989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이는 고령화로 인력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본 사회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테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이미 일본 중소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력 부족으로 파산한 기업은 역대 가장 많았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204만 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0년 전에 비해서는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다케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노동자 유출 현상은 경제 전망과 직결돼 있다”며 “일본에서 더 빠른 성장을 위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젊은이들이 돌아올 이유가 생길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구글, 美캘리포니아주 뉴스 제공 ‘일시 중지’

‘저널리즘 보호법’ 상원 통과만 남아 ‘일부 사용자만 영향... 일종의 실험’

구글이 뉴스 매체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뉴스 링크 제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일부 사용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이 제품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저널리즘 보호법’은 디지털 플랫폼이 광고와 함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때 뉴스 매체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 검색과 소비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다.

입법을 추진한 마이크 맥과이어 주 상원 의장은 구글의 움직임이 두고 “응급상황과 지역 공공 안전에 대한 정보를 뉴스에 의존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구글의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구글 경영진이 이번 조치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나홀로 승승장구...美경제 끌어올린 3가지

작년 2.5% 경제성장... 주요국 최고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이 경기둔화나 침체 위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만 홀로 번영하는 모양새다.

BBC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연간 경제성장률은 2.5%로 집계됐다. 한국이 1.4%, 유로존이 0.4%, 일본이 1.9%에 그친 가운데 세계 1위 경제국인 미국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3.3%)은 주요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치인 2%를 크게 웃돌며 놀라움을 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퍼부은 5조 달러(약 6823조 원)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먼저 꼽는다.

2020년 3월 미국 의회는 미국 근로자와 가계, 기업에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통과했다. 이후엔 중소기업과 노동시장 지원을 위한 두 가지 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경기부양지수에서 166개국 가운데 2020~2021년 미국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더 많은 부양책을 펼친 선진국은 싱가포르가 유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시장에 유입된 5조 달러는 여전히 미국 경제에서 순환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코로나 당시 5兆달러 경기부양책 펼쳐 中企·노동시장 지원... 경제성장세 유지

유연한 고용→투자→일자리 창출 선순환 에너지 자급자족에 인플레이션 완화 긍정적

평가된다. 글래스도어의 애런 테라자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8~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담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교훈을 정책입안자들이 얻었다"며 "그래서 재정적 대응이 훨씬 더 강력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연한 고용시장을 미국 경제를 홀로 잘 나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도 있다. 집리크루터의 줄리아 폴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유연한 노동법이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됐을 당시 많은 기업이 인력을 감축하도록 도왔다고 평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안겼지만,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게끔 장려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졌다.

에너지 자급자족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을 때 미국보다 유럽이 더 큰 피해를 봤다.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탓이다. 반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미국은 서방의 대리시 아 제재를 틈타 에너지 순수출국 지위까지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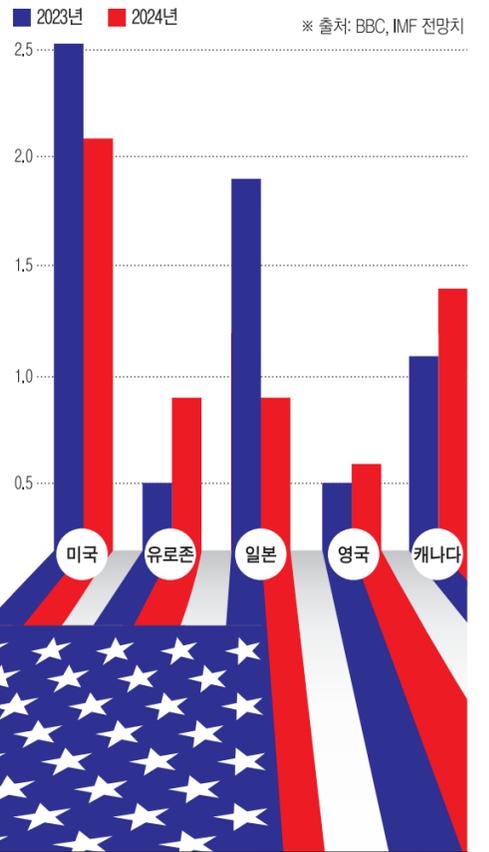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미국 경제 모니터링을 총괄하던 벤 웨스트모어는 "2021년 초부터 2022년까지 유럽 휘발유 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했지만, 미국 상승률은 3~4%에 불과했다"며 "유럽 내 가격 인상이 더 커졌을 뿐 아니라 기업이 소비자에게 이를 전가하는 경향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요인이 유럽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더 빠르게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지난해 연말 '미국 경제를 설명하는 10가지'라는 이름으로 경기회복의 주요인을 평가하기도 했다.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제조업 투자 △낮은 실업률과 임금 불평등 감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흑인 성장 △소비심리 개선 등을 거론했다.

백악관은 "많은 전문가가 경기침체를 예측했고 일부는 100% 확률로 침체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2023년 미국 경제는 예상을 깨뜨렸다"며 "그럼에도 미국인들이 지속적인 실질 임금 상승과 강력한 노동 시장, 인플레이션 감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고대명 기자 koda00@

국가별 실질 경제성장률 (단위: %)



출산을 하락 상쇄하는 이민자 유입 정책... 경기회복 발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세계 경제 질서에서 미국이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며 예상 밖 승자로 부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대유행 이후 크게 늘어난 이민자 유입을 꼽았다. 이민 급증이 출산을 하락 속에서도 노동인구를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경제 성장과 재정 확대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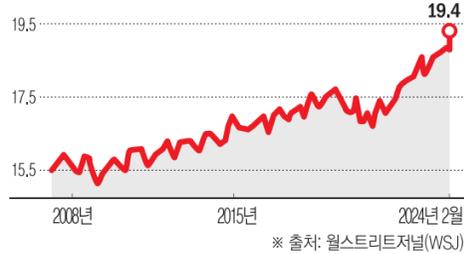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작년과 올해 급증한 이민자 유입에 따라 올해 잠재성장률이 0.3%포인트(p) 상승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 성장이 멈췄고, 대만의 작년

연준 "노동시장 경색 완화하는데 큰 도움" 과도한 임금·물가상승 막는 안전판 역할 선진국 이민자 1%p↑ = 5년 후 GDP 1%↑

성장률은 1.3%에 그쳤다.

이민자 유입은 미국에서 큰 정치적 쟁점이 돼 왔지만,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당국자들은 이민자들이 노동시장 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밀려온 저숙련 노동자들은 임금과 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막아 경기 과열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미국 민간 노동력 중 외국 출생 비율 (단위: %)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에서 취업자 가운데 이민자 비율이 1%p 오르면 5년 후 국내총생산(GDP)이 거의 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추정치에서 이민자 증가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현지 출생 근로자의 평균 소득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민 정책을 손보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발급을 15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2019년 중·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농업과 간병 등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다만 아시아 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WSJ은 짚었다. 이들 정부는 국방비 증액, 내수 확대, 반도체에 의존하는 경제 다변화 등을 우선순위로 과제로 꼽고 있다. WSJ은 "시간은 멈춰 있지 않고, 사람은 끊임없이 이동한다"며 "동북아시아가 경제 성장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안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상생 해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위험성평가 등 상생협력활동을 대기업(모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지원 비용 지원
 -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에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 매칭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 지원
- ▶ 정부지원 예산규모 90억원
- ▶ 신청대상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와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 지원내용 기술지원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검토 및 이행 모니터링, 상생협력활동 평가 수행
매칭지원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 상생협력활동 비용을 정부와 모기업이 매칭하여 지원
※ 매칭분담비율: ▲사외·지역중소기업 80%70: 80%30 ▲사내 협력업체 50: 50%50
- ▶ 지원한도 컨설팅과제 협력업체 1개소당 최대 2,000만원(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지원
활동과제 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지원
- ▶ 지원혜택 우수기업 선정시
 - ① 고용노동부 장관 우수사업장 선정서 ②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 ③ 정부 동반성장 지수 평가 가점 ④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 보조금) 우대 등

사업 문의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연락처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연락처
서울광역시	서울, 강원, 서울남부, 서울동부, 강원동부 TEL: 02-6711-2965	인천광역시	인천, 경기북부, 경기중부, 고양파주 TEL: 032-510-0608
부산광역시	부산, 경남, 울산, 경남동부 TEL: 051-520-0531	대전광역시	대전, 충남, 충북, 충북북부 TEL: 042-620-5615
광주광역시	광주, 전북, 전북서부, 전남, 전남동부, 제주 TEL: 062-949-8745	경기지역본부	경기, 경기서부, 경기동부 TEL: 031-259-7172
대구광역시	대구, 대구서부, 경북, 경북동부 TEL: 053-609-0524	※ 담당자, E-mail은 상기 연락처로 연락하여 확인바랍니다.	

문의처 공단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및 자율안전사업부 Tel. 052-703-0631, 0633
※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HD현대마린솔루션

일반공모 안내

발행사 에이치디현대마린솔루션(주)

공모예정가 73,300원~83,400원

청약일 2024년 4월 25일(목)~26일(금)

환불일 2024년 4월 30일(화)

*기타사항

1) 본 공고는 향후 발행 예정인 증권의 공모를 위한 단순 광고이며,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발행 금액, 청약일·납입일 등 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조건은 청약일 전에 확정될 예정이며, 투자 설명서, 예비 투자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등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 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여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1283호(2024년 4월 5일~2025년 4월 4일)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환율 변동>·<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 원금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영업점 계좌) HTS, 홈페이지 1천만 원 미만 0.1573%+1,000원/MTS, WTS 0.1973%(대표 수수료)이며, 계좌별,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증권) 일반청약자에게 복수배정 방식(균등 방식·비례 방식 등)이 적용되어 각 방식에 따른 배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모증권) IPO 공모주식은 상장 초기 가격 변동성이 크며, 상장 후 주가가 공모 가격을 하회하여 투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일반청약자 우대등급에 따라 지점 내방 청약 시 건당 4,000원, 온라인 청약 시 건당 1,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일 한국전략경영학회가 서울 성북구 고려대 현대자동차 경영관에서 '전략적 투자와 혁신생태계의 성장'을 주제로 2024년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특별세션에서 참석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CVC, 글로벌 투자 느는데… 규제 풀어야 혁신 속도”

전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 기업들의 벤처 투자 전략

기업들의 벤처 투자(Corporate Venture Capital·CVC) 전략을 살펴보고, 혁신 기술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전략경영학회는 13일 고려대학교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전략적 투자와 혁신생태계의 성장'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한국전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펜벤처스코리아, 스마트스터디스벤처 및 이투데이가 후원했다.

백용욱카이스트 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패널로는 황윤성 현대자동차·기아 오픈이노베이션 추진실 상무, 송명수 펜벤처스코리아대표, 이현송스마트스터디벤처스대표, 김영덕은행권창업재단(D.CAMP) 전 대표, 비살 샤르마(Vishal Sharma) 로레알 코리아리서치&이노베이션 디렉터가 참여했다.

백용욱 교수는 “CVC는 벤처캐피탈(VC)과 달리 투자의 기간 제약이 없고, 투자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밸류체인이나 신사업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 세계적으로 4건의 투자 중 1건은 CVC고, 규모로 따지면 절반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CVC는 대기업이 출자한 VC를 뜻한다. 우량 스타트업에 대한 조기 투자 전략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혁신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시 인수합병(M&A)으로 이어진다. 사업에

전 세계 투자 4건 중 1건 CVC 조기 투자로 비용·시간 줄이고 스타트업엔 대기업 인증효과 일각 “국내 투자 규제 완화”

필요한 기술개발의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황윤성 현대차·기아 상무는 CVC의 두 가지 목적으로 전략적인 부분과 시장 분석(마켓 센싱)을 제시했다. 먼저 황 상무는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혁신을 ‘메카(MECA)’라고 하는데, 이동성(Mobility), 전동화(Electrification), 연결성(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으로 구성된다”며 “실리콘밸리에서 온 혁신 기술에 투자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켓 센싱 목적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지만, 스타트업이 가진 기술이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 요소를 가져거나 우리 회사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집 켈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텐스토렌트’를 예로 들었다. 현대그룹은 최근 텐스토렌트에 5000만 달러(약 692억원)를 투자했다.

샤르마 로레알 디렉터는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는) 스타트업이 가진 아이디어나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는 ‘PoC(Proof of Concept)’ 측면에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무적, 기술

적, 재무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윈윈’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투자를 받았다면 ‘인증 효과’를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채널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V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덕 은행권창업재단 전 대표는 “과거 대기업의 약탈적인 관행과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는 타당하다”면서도 “규모가 커진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혁신 속도가 떨어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 VC나 CVC는 예외 없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기업이 SI(전략적 투자자)로 들어가거나 해외 기업이 투자하려고 할 때 이 동의권 때문에 투자 집행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송 스마트스터디벤처스 대표는 “벤처 펀드의 출자자가 대부분 정부 기관이다 보니 예산 문제상 펀드 연장이 쉽지 않고 사후관리가 엄격하다”며 “반면 정부 주도의 벤처 투자 문화가 스타트업에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송명수 펜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최근 몇 년간은 스타트업들이 사업하기 제일 좋은 시기였다. 정부 지원금도 있고, 대기업이나 금융권 투자도 늘어났다”면서 “대기업 내부에서도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신기술 투자 부문이 인기를 끌고 있고 스타트업과 협업하려는 문화도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기업 혼자선 기술 발전 못 따라가”

김영규 전략경영학회장은 스타트업과 협업은 시대적 흐름 장인기업 오래 살아남는 법 연구

김영규(사진) 한국전략경영학회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올해 ‘성장’이란 화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13일 한국전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본지와 만나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한국 경제도 성장을 멈추고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처럼 어려울 때 기업이 어떤 전략을 갖고 이상황을 극복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경영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한국전략경영학회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특별 세션 주제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CVC)을 선정한 이유도 CVC가 기업들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과거에

는 대기업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과 투자가 이뤄져 왔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도 예측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체계적으로 조직된 회사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를 다 흡수해서 그에 맞는 속도로 혁신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결국 혁신을 해나가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규모의 스타트업으로, 스타트업과 함께 일하면서 발전을 하기 위해 CVC 투자 모형 등이 최근 많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한편, 기술 역량을 보유한 ‘장인 기업’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인적 자원, 기술 역량 등이 중요한 요소였는데, 요즘 들어 오랜 장인들이나 기술들이 적어지는 것 같다”며 “기술을 오랫동안 보유한 기업들이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

리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도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지면서도 대를 이어 기술이나 지식 유지를 해온 기업들을(계속해서) 볼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LG엔솔의 ‘유튜브 트렌드’ 보고서, AI가 작성한다

시장 파악 업무에 생성형AI도입 신규직원 질문 답변도 챗봇 활용 구매·개발 등 AI플랫폼 연내 구축

LG에너지솔루션은 세밀하게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먼저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한 건 ‘유튜브 트렌드 리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분석한 유튜브 트렌드 리포트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 LG에너지솔루션

포트’다. AI가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 배터리 관련 분야 최신 트렌드 내용을 정리해 임직원에게 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시장 파악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차’, ‘EV 정책’ 등 핵심 키워드별로 최신 유튜브 영상의 주요 내용이 요약되고 관련 영상 정보가 첨부된다.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면 추가적인 내용과 해당 영상의 댓글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생성형 AI의 대표 기술 중 하나인 대화형 챗봇도 활용 단계에 들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채용한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을 대상으로 AI가 HR 제도에 대해 답해주는 파일럿 시스템을 오픈했다. “올해 권장 휴무일은 언제인가”, “휴가 신청은 어디서 하나” 등의 질문을 AI가 사전 학습한 회사 HR 제도를 토대로 실시간 대담해주는 방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AI 통합 플랫폼’을 올해

까지 구축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 및 협력사 계약 관리 △전사적 자원 관리(ERP) △소프트웨어 개발 △원자재 구매 △배터리 제작 등 전체 업무 분야에 AI를 접목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규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AI 기술력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내리는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전기차 캐즘’에 희비 갈린 이차전지 소재기업

전기차·배터리 업계가 본격적인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 구간에 진입했다. 배터리 셀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를 기록했다. 후방 산업군인 소재업체의 실적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배터리 양극재 업체들은 리튬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일부를 1분기에 환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엘앤에프는 2382억 원,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은 각각 1653억 원, 767억 원의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했다.

바닥을 다지던 리튬값은 2월 들어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탄산리튬 가격은 올 초 kg당 86.5위

안으로 저점을 형성하다가 3월 중순 108.5위안까지 올랐다. 수산화리튬 가격은 연초 톤(t)당 1만1700달러에서 3월 말 1만4000달러까지 상승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재고평가손실 총당금으로 인식했던 금액 중 일부를 환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의 1분기 영업이익은 247억 원으로, 전분기(736억 원 적자)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코프로비엠도 작년 4분기 1147억 원 적자에서 1분기 17억 원 흑자가 기대된다.

대규모 수주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엘앤에프는 올해 들어서만 SK온, 유럽 고객사 등과 각각 30만 톤, 17만6000톤 규모의 하이니켈양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금

2월 들어 리튬가격 반등 발판

포스코퓨처엠 등 흑자전환 기대 엘앤에프는 하이니켈 공급 확대

동박업체는 실적 전망 제각각 수요급감 분리막 부진 불가피

액 기준으로 총 22조 원이 넘는 규모다.

동박업체들은 실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고객사인 삼성SDI가 업황 부진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매출 비중도 지난해 20%에서

올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해외 경쟁사의 품질 이슈로 반사 수혜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는 고객다변화의 원년이 될 전망으로 기존 전략 고객사의 비중 확대가 고무적이며, 올해 중신규 유럽 고객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SKC의 동박 사업회사 SK넥셀리스는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 둔화와 고객사 물량 축소 등으로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SK넥셀리스는 작년 3분기 130억 원, 4분기 332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500억 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SK넥셀리스의 동박

가동률은 54.7%에 그쳤다.

분리막 업체는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경우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계열사(캡티브)의 배터리 출하량이 급감한 점이 뼈아프다. 다만 SKIET는 SK온 매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고객사를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현재 국내외 5개 이상의 배터리 셀 제조사들과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유씨피(WCP)는 주 고객사인 삼성SDI가 견조한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동공구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4.60% 급감한 57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매각 표류하는 K-해운... 실적·업황악화까지 ‘침침산중’

저평가 우려·매각이 격차 못 좁혀 현대LNG해운·HMM 인수 ‘난항’ 업계 “불황에 시간 끌수록 불리”

국내 해운사들의 매각 시도가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고 있다. 매각 측과 매수 측이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매각을 1~2년 뒤로 미룬다고 해서 매각 측이 원하는 가격을 받아내는 게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협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와 IMM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된 IMM컨소시엄은 올 6월 돌아오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선사 현대LNG해운의 인수금용 2000억 원에 대한 만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 번 만기를 1년 연장해, 이번에도 연장을 결정하면 기존 계획보다 2년 더 만기가 연장된다. IMM컨소시엄이 만기 연장을 결정한 이유는 현재 현대LNG해운의 기업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IMM컨소시엄은 2014년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현대LNG해운의 지분 79.2%를 인수했다. 이후 지난해 상반기 HMM이 현대LNG해운 인수를 추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당시 무산의 결정적 이유는 금액 차이였다. HMM이 제시한 금액은 3000억 원대다. IMM컨소시엄은 2022년 기준 현대LNG해운의 가치를 약 7500억 원 정도로 봤는데, 매각 측과 매수 측의 희망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에 달했다.

하림의 HMM 인수 무산 이유 역시

근본적으로는 금액 문제였다. 하림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HMM 인수를 위해 2조 원 이상의 인수금용,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연대 등을 통한 6조4000억 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외에 채권단이 보유한 1조6800억 원 규모의 영구채 주식 전환과 관련한 자금 마련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채권단은 새로운 인수 후보를 찾겠다지만, 매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에서는 국내 해운사들이 매각가가 적다는 이유로 인수를 마르고 있지만, 1~2년가량 매각을 미룬다고 해서 상황이 호전되진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은 현재 불황 초기 단계라 매각을 1~2년 미룬다고 해서 매각가가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전 세계 해운업계는 당분간 업

황에 악영향이 갈 요인들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글로벌 해운업체들은 코로나 19 시기 벌어들인 이익을 차세대 선박 건조에 투자해왔는데, 해당 선박들이 순차적으로 인도되며 선박 과잉 공급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글로벌 소비 위축, 해운 동맹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역시 업황 다운사이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소 3년은 기다려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수요공급 문제도 개선되며 업황반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해운업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매각 측이 원하는 가격으로 해운사를 매각하기 위해선 1~2년이 아닌 그 이상의 장기간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주원호(왼쪽)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와 라이언 테일러 팔란티어 글로벌 영업대표 및 최고법무책임자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HD현대

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2026년까지 정찰용 USV 개발

HD현대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손잡고 차세대 무인수상정(USV) 개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HD현대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팔란티어 사무실에서 팔란티어와 ‘무인수상정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 해군, 육군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미국 방산 인공지능(AI) 기업이다.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사와 미 해군의 통합 전투시스템 현대와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체결식에는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 부사장, 라이언 테일러 팔란티어 글로벌 영업대표(CRO) 및 최고법무책임자(CLO)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2026년까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찰용 USV를 개발하고, 이후 전투용 USV로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개발된 USV는 높은 파도 등 거친 환경에서는 운용하기 힘들고, 유인함정의 임무 수행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축적한 자율운항 기술과 첨단 방산 AI를 결합해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양사는 HD현대의 자율운항 전문회사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소프트웨어와 팔란티어의 미션 오토노미(AI 기반 임무 자동화)를 접목한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탑재될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통합하고, 고성능 선체 개발을 맡는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무인함정 시장은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제주도 최초 E-pit 충전소 ‘새빛 E-pit’. 사진제공 현대차

현대차그룹, 제주 EV렌터카에 ‘이핏’ 충전비 지원

롯데렌터카 PnC 전기차 대상

현대차그룹이 향상된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알리기 위해 전기차(EV) 렌터카에 플로그 앤 차지(PnC) 기술을 적용한다. 현대차그룹은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제주도에 위치한 롯데렌터카에서 운영하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에 PnC 기술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PnC는 충전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회원 인증부터 충전과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 소재 롯데렌터카에서 운영하는 PnC 적용 전기차

는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기아 EV6, EV9, 니로 EV △제네시스 GV60, G80 전동화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9종이다. 대상 차량을 단기 렌트한 고객이 제주도 이핏(E-pit) 충전소 내 260킬로와트(kW)급 충전기에서 초고속 충전을 할 경우 차량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고객은 충전기 화면의 ‘PnC 충전’ 버튼을 선택해 별도 인증 및 결제 과정 없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E-pit은 국내에서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제공하는 현대차그룹의 초고속 충전 서비스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LG 올레드TV “성능·환경 원더풀”

英·美 “삼성 S95D 기술 격상시켜” LG는 환경보호 제품인증 잇달아

삼성전자와 LG전자 올레드(OLED) TV 신제품이 해외에서 잇단 호평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레드 시장에 재진입한 지 2년 만에 제품 성능까지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플라스틱을 크게 줄여 친환경까지 챙겼다는 평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IT 전문매체 T3는 삼성전자 올레드 TV S95D에 5점 만점과 ‘플래티넘 어워드’(Platinum Award)를 수여하며 “올레드 성능에서 비약적인 도약을 이뤄낸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T3는 S95D에 대해 “최고의 프로세싱과 뛰어난 이미지 정확도를 갖춘 최고의 4K 디스플레이”라고 했다.

영국의 트러스티드 리뷰는 S95D에 대해 “올레드 기술을 한 단계 격상시켜 뛰어난 밝기는 물론 컬러와 명암 구현력이 업그레이드돼 최상의 화면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미국 뉴스위크는 S95D를 ‘에디터스 초이스’(Editor’s Choice)로 선정하고 “매트한 화면이 적용돼 장문이 있는



삼성전자 올레드 TV 제품(위 사진)과 2024년형 LG전자 올레드 TV. 사진제공 삼성전자·LG전자

방에서도 훌륭한 시청 경험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극찬했다.

올레드 TV 선두주자인 LG전자는 해외 유력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보호 관련 공인을 받고 있다. 최근 LG 올레드 TV는 비영리 인증기관인 영국 카본트러스트와 스위스 SGS로부터 각각 4년 연속 환경 관련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또 영국 비영리 인증기관인 인터텍에서도 2년 연속 인증을 받았다.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친환경 활동 노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박민용 기자 pmw7001@

〈2025년까지〉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돌봄… 요양 인프라 100개 구축”

탐방기UP 케어링

요양 서비스 제공 기업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를 100개 이상 구축하겠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14일 본지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요양 서비스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설립된 요양 서비스 기업 케어링은 ‘아픈 어르신을 돌보는 보호자가 기댈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시장의 문제에 집중했다. 창업 당시 요양 서비스 업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일하는 사람이 적어 공급이 부족하고,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한 인식도 낮은 상황이었다.

케어링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요양보호사를 직고용해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400억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장기요양 등급 상담·병원동행 등 통합재가 요양 인프라 구축 속도 주거-의료 결합 ‘케어링빌리지’ 시니어하우징 서비스 내년 론칭

등 어르신, 보호자,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케어링 소속 요양보호사는 4만2000명, 누적 서비스이용자는 1만6000명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다.

4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2월에 유치하고, 전국 통합재가 요양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서울, 수도권, 영남, 호남 지역에 집중된 34개의 케어링 직영점을 충청, 강원 지역으로 차례로 확대하고, 권역별 통합재가 본부를 설립할 계획



김태성 케어링 대표. 사진제공 케어링

이다. 김 대표는 “지역 확장 시 수익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따뜻한 분들이 많아져야 케어링이

제공하려는 돌봄 서비스의 가치가 고객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어링은 장기요양등급 상담부터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단기 보호,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재가 요양 인프라를 2025년까지 100개 이상 확충할 방침이다. 또 시니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1월에는 시니어하우징 사업 확장을 발표하고 시니어 케어에 특화된 대규모 시니어하우징 구축에 나섰다.

김 대표는 “액티브 시니어 대상 실버타운은 많은 사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돌봄이 필요한 후기 고령자를 위한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은 사업자가 적다”며 “다년간 쌓은 케어링의 데이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나이, 건강상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세분된 케어와 의료 서비스를 주거시설 내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어링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을 추구하는 웰에이징 콘셉트의 ‘케어링스테이’와 주거 및 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너싱홈 ‘케어링빌리지’를 내년에 론칭할 예정이다. 두 곳 모두 지난 3월 정부가 발표

한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형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유니트케어는 요양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과 공용생활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시니어의 안전을 위해 주거시설 내에 방문요양간호 통합센터를 마련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한 24시간 상주 간호사와 전문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적인 인력 배치를 기반으로 의료, 간호, 재활, 돌봄이 모두 가능한 공간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일환인 노인복지주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어링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시니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 대표는 “어르신들이 노후를 존엄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해나겠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

비맥스, 마침내

제 24회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통령상 수상

이 영광을

약사님과

고객님께

비맥스

대통령상 KOREA BRAND AWARDS 2024

【광고심의필 2023-1659-002401】 *2022년 24회 /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산업정책연구원 *허가사(제조자는 제조의뢰자)·(유)한홍제약·(만)메사(주)녹십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상의하십시오

세라젬, 작년 매출 5847억… 22.1% 감소

영업익 189억… 전년비 62.7% 폭 “뷰티·가정용 의료기기 안착 노력”

세라젬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58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1%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1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7% 감소했다.

세라젬 관계자는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헬스케어 가전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조직 통합 거점인 ‘헬스케어 이노타운’ 신설과 사업다각화를 위한 선행기술투자 등도 영향을 미쳤다. 세라젬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9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한 바 있다.

글로벌 사업은 전년 대비 27% 성장한 184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중국 시장 매출이 12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가량 성장했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도 고른 성장을 보였다. 2022

년부터 전략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미국 시장의 경우 75%가량 매출이 증가하는 등 인지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세라젬은 올해 CES 2024에서 호평을 받은 신제품 마스터 V9과 파우제 M6 등 주력 사업분야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잠재력이 높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등 신규 시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매출 확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새로 개소한 통합 R&D센터 ‘헬스케어 이노타운’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가전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늘릴 예정이다.

세라젬 관계자는 “지나해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 헬스케어 가전 1위 기업으로서 글로벌 확대 및 새로운 사업 영역에 꾸준히 투자해왔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기존 사업영역 외에 이온수기나 뷰티, 신규 가정용 의료기기 등 새로운 영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중기부,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

산학협력·산업특화·지역거점 구분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BI 4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역량 BI는 3가지 유형(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으로 구분 지원해 기관별 강점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설계하는 사업으로 전국 257개 BI 중 경쟁력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화역량 BI는 1억5000만~3억 원을 지원해 창업기업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애로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BI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술의 과제 기획, 제품의 마케팅 전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에 BI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산학협력형 BI’는 대학 내 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 애로를 해결하는 산학연결 멘토링, 과제기획을 강화한다. ‘산업특화형 BI’는 지역주력산업 지원기관과 협력해 전문화 및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지역거점형 BI’는 지역 BI 간 협업을 통한 공동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조남호 기자 spdram@

K-웹툰 삼인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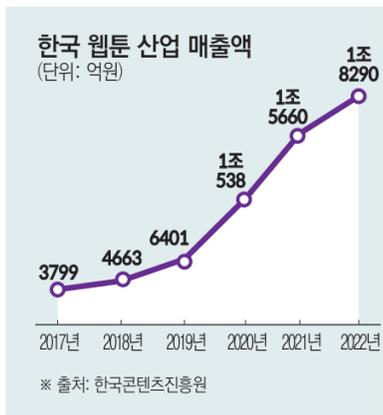
글로벌 공략 '쟁걸음'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리디 등 국내 웹툰 기업이 만화·애니메이션 나라 일본 시장을 선점한 데 이어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들은 웹툰·웹소설의 지식재산권(IP) 비즈니스로 영역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도 웹툰 중주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확립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며 웹툰 산업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그룹 컨트론타워인 CA(Corporate Alignment) 협의체 전략위원회 산하에 스토리 IP 소위원회 설립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스토리 IP 소위원회를 통해 웹툰·웹소설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해 글로벌 IP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토리 IP 소위원회는 계열사의 웹툰 등 콘텐츠 IP 관련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카카오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작을 지속해서 배출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무빙', '경로의존 소문', '나 혼자만 레벨업' 등 K웹툰을 전세계에 알린 IP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카카오는 창업자인 김범수 CA 협의체 공동 회장이 제시한 '비온드 코리아'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의 영상화 작업을 시작으로 MD와 출판, 게임 등 다양한 사업으로 다각화해 IP의 영향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후발주자인 리디도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문을 두드리며 콘텐츠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지난해 일본에서 라인망가와 픽코마, 메차코믹을 통해 대표 웹툰 '상수리나무 아래'의 콘텐츠 경쟁력을 입증한 리디는 글로벌 웹툰 구독 서비스만 타가 지난해 스페인어 서비스에 이어 올해 프랑스어 서비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웹툰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만타는 누적 다운로드 1400만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기식 리디 대표이사는 "올해는 글로벌 웹툰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콘텐츠 사업다각화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웹툰 중주국의 위치를 수성하기 위해 웹툰 플랫폼 육성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민간합동 60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활용해 만화·웹툰 기업의 IP 사업화를 지원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만화웹툰산업팀을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문체부 내 대중문화산업과를 만화웹툰산업과로 개편해 지원 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다. 김나리 기자 nari34@

스토리IP 소위·장윤중 공동대표 등 카카오, 글로벌 IP 사업 강화 포석

글로벌 확장을 위해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가 당국의 조사 여파로 해외 진출이 주춤했기 때문이다. 김창업자는 2022년 3월 20% 수준의 해외 사업의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현재 카카오의 해외 사업 매출은 19.54%로 오히려 감소했다.

카카오가 장윤중 글로벌 전략 책임자(GSO)를 공동대표로 교체한 것도 글로벌 IP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 사업의 IP 장르를 다양화하고 카카오픽코마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메가IP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카카오그룹의 스토리IP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네이버웹툰, 6월 나스닥 상장 도전 웹툰 영상화·게임·출판 등 영역 확장

네이버웹툰은 K-웹툰 흥행에 힘입어 6월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이후 본격적인 북미 공략에 나선 계획이다. 네이버웹툰은 6월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이후 본격적인 북미 공략에 나선 계획이다. 네이버웹툰은 6월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이후 본격적인 북미 공략에 나선 계획이다.

리디, 프랑스어 지원 유럽공략 박차 구독업 '만타' 다운로드 1400만 돌파

은 상당 자금을 활용해 글로벌 이용자 저변 확대, IP 발굴 등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남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웹툰을 미국 시장에 상장하며 브랜딩 효과와 인지도, 할리우드 제작사와의 협력 등에서도 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모기업 네이버의 주주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올해도 웹툰

'쿠팡 와우 멤버십' 가격 58% 쯤췰... OTT 요금인상 신호탄 되나

(쿠팡플레이 포함)

국내 OTT 시장에서 스포츠 중계로 이용자들을 늘려왔던 쿠팡플레이가 쿠팡의 다양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묶인(Lock-in)한 상태에서 한 번에 구독료를 58% 올렸다. 지난해 말 스트리밍플레이션(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으로 정부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격 인하' 압박을 가했지만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승리하자 OTT 업계가 다시금 가격 인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와우 멤버십 서비스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2021년 말 이후 2년 4개월 만의 재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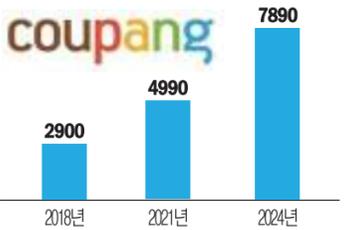
멤버십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변경된 요금이 바로 적용되며, 기존 회원은 8월부터 적용된다. 인상률은 약

3월 활성이용자 780만명 '역대 최대' MLB 개막전 등 '스포츠 중계' 효과 쿠팡 와우멤버십 4990원→7890원 티빙도 다음달 KBO 무료중계 종료

58%에 달한다. 쿠팡플레이는 별도의 구독료 없이, 와우 멤버십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멤버십 요금인상은 온라인 쇼핑을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쿠팡플레이 시청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쿠팡은 이용자를 늘리며 영향력 있는 국내 OTT로 자리 잡았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플레이 앱의 3월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약 78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토종 OTT 간 경쟁에서 티빙이 앞서던

쿠팡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단위: 원, 월 기준)



MAU를 지난해 8월 처음 앞지르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는 스포츠 중계 효과가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플레이의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3월 초 71만 명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린 지난달 21일엔 194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보기 위해 가입자가 늘면서 이용

자가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해당 OTT에서만 볼 수 있는 스포츠 중계를 보기 위해 시청자들이 몰리면서다. 메조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자 2명 중 1명은 스포츠 중계가 OTT 구독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를 맡은 티빙의 경우에도 151만 명 수준이던 이용자가 프로야구 개막일인 지난달 23일엔 198만 명으로 늘었다.

이용자들의 OTT 가격 인상 부담은 커질 예정이다. 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중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4대 메이저 골프대회인 마스터스를 국내 OTT 최초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축구, 야구, F1, 격투기, 골프, 테니스까지 중계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올여름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를

한국에 초청할 계획이다. 김민재와 손흥민이 각각 다른 유니폼을 입고 서울에서 맞대결하는 장면을 볼 수도 있다.

또 다른 국내 OTT 업체인 티빙에 대한 시청자들의 부담도 늘어났다. 티빙은 올해부터 3년간 KBO리그 온라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해 3월 시범경기부터 무료 시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유료시청을 종료하고, 전면 유료화를 시행한다.

대통령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OTT 비용과 관련해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나섰다. 이 같은 정책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직후 쿠팡의 이용료 전격 인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눈치 보던 경쟁사들도 잇따라 이용료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임유진 기자 newjean@

LG유플, 서울대 연구팀과 '미래 양자통신 백서' 발간

"양자컴퓨팅 등 수요 늘어날 것"

LG유플러스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이경환 교수 연구팀(NXC연구실 이민재, 박동수, 박찬정 석박사통합 연구원)과 '미래 양자통신 백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양자기술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2035년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통해 3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양자기술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LG유플러스와 NXC연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학계와 정부, 기업에 양

자정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했다. 백서는 양자 정보기술을 크게 양자통신·양자컴퓨팅·양자센싱으로 분류한다. 특히 양자통신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을 세부적으로 소개한다.

양자통신이란 서로 연결된 양자컴퓨터·양자센서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양자 정보를 전달하는 양자 전송 기술 양자 정보 전송을 위한 인프라인 양자네트워크 기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양자통신응용 기술로 분류된다.

백서는 또한 향후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등 양자기술의 활용처가 확대될수록 양자통신의 수요 증가도 전망했다. 현재

기술로 처리하기 어려운 다량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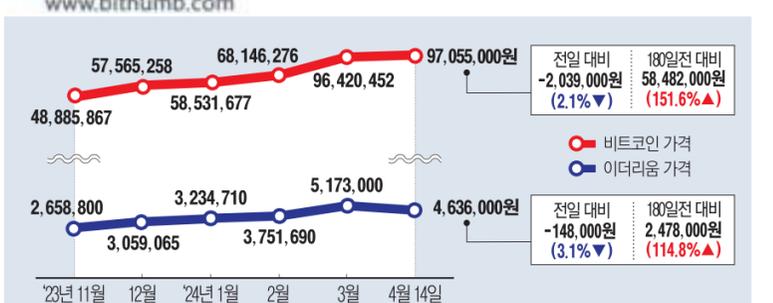
LG유플러스는 이번 백서를 통해 양자통신 시대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 양자통신 생태계 로드맵을 산학 연구를 통해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현 LG유플러스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 "다가올 양자통신 시대를 예측하고 연구개발과 비즈니스로 더욱 진보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빗썸 지수 (2024년 4월 14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 대비	180일 전 대비
비트코인캐시	748,500	-54,500 (6.8%▼)	-
리플	745	-53 (6.6%▼)	-
솔라나	216,700	-5,200 (2.3%▼)	-
에이다	711	-31 (4.2%▼)	-
이오스	1,143	-171 (13.0%▼)	-
트론	168	-	-
스텔라루멘	165	-3 (1.8%▼)	-
비트코인에스비	104,000	-9,900 (8.7%▼)	-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이번엔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8兆 시장 '후끈'

〈골다공증 치료제〉

내년 美·유럽서 특허 만료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달구고 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리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내년에는 8조 원 규모의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개화한다.

1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암젠이 개발한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는 2025년 2월과 11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특허가 만료된다. 프롤리아는 파골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세포막 단백질(RANKL)을 억제해 골파괴를 줄이고 골질량과 골강도를 증가시키는 약이다. 암젠의 골전이 합병증을 예방 치료하는 '엑스지바'로도 허가됐다. 지난해 프롤리아-엑스지바의 글로벌 매출은 61억6000만 달러(약 8조4000억 원)였고, 이 중 약 70%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뼈 파괴하는 세포막 단백질 억제 셀트리온 美 FDA 품목허가 신청 삼비에피스 글로벌 임상3상 마쳐 중·이스라엘 등 각국 개발 속도

국내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페스가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휴온스랩도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골다공증, 골소실,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 골전이로 인한 골격계 합병증 예방, 골거대세포종 등 프롤리아-엑스지바가 미국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다. 같은 달 한국, 올해 3월 유럽에서도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임상 3상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4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

※ 출처: 각사

기업	국가	물질명(제품명)	현황
셀트리온	한국	CT-P41	미국·유럽·한국 허가 신청
삼성바이오에피스	한국	SB16	국내외 허가 신청
산도스	스위스	주본티	미국 허가·유럽 허가 권고
테바	이스라엘	TVB-009	임상 3상 완료
알보텍	아이슬란드	AVT03	임상 3상
게데온 리히터	헝가리	RGB-14-P	임상 3상 완료
프레제니우스 카비	독일	FKS518	임상 3상 완료
바이오콘	인도	Bmab1000	임상 3상
인타스 파마슈티컬	인도	INTP23	임상 3상
헨리우스 바이오텍	중국	HLX14	임상 3상
보안바이오텍	중국	BA6101	중국 허가

국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폐경기 여성환자 4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약력학적 유사성을 확인했다. 허가 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영역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항암제에서 골질환 치료제로 확대하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폴란드 등에서 457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SB16'

의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쳤다. 현재 국내외 허가를 추진 중으로, 국가와 신청 시점 등은 전략 노출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첫 번째 FDA 허가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올해 3월 이미 탄생했다. 산도스가 개발한 '주본티'와 '와이오스트'다. 각각 프롤리아, 엑스지바와 제형 및 투여방

법이 같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모든 적응증에 대해 교체처방이 가능하다.

산도스 외에도 각국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한창이다. 임상 3상을 마쳤거나 완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헨리우스 바이오텍과 산둥보안바이오텍이 개발 중이다. 헨리우스 바이오텍은 2022년 오가논과 손잡고 'HLX14'의 중화권을 제외한 전 세계 독점적 상업화 권리를 넘겼다. 'BA6101'을 개발한 보안바이오텍은 중국 1호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받아 '보요우 베이'로 판매 중이다.

이스라엘 테바는 작년 6월 'TVB-009'의 임상 3상을 완료했다. 유럽에선 알보텍(AVT03), 프레제니우스카비(FKS518), 게데온 리히터(RGB-14-P) 등이 참전했다. 인도의 바이오콘(Bmab1000)과 인타스 파마슈티컬(INTP23)도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유혜은 기자 euna@

국내 CAR-T 치료제, 혈액암 넘어 고형암도 정복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CAR-T(키메라항원수용체-T세포) 치료제 적응증을 혈액암에서 고형암으로 확대하는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고형암 CAR-T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최근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고형암 대상 첫 세포치료제 '암타그비'를 승인하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형암 타깃 치료제는 기존 CAR-T 치료제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CAR-T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세포인 T세포에 암세포만 추적하는 키메라항원수용체(CAR)를 붙인 약이다. 환자 몸에서 T세포를 분리해 유전자를 조작한 뒤 배양을 거친 후 다시 환자에게 투여한다. 치료제가 체내에 들어와 암세포와 만나면 T세포가 활성화돼 암세포를 제거한다.

항원다양... 과거 개발 업두 못내 애플론, 美 학회서 연구결과 발표 큐로셀, 전립선·폐암 대상 임상 HLB 자회사 美 임상 1상 진행

현재 FDA에서 허가된 CAR-T 치료제는 노바티스 김리아 등 6개다. 국내에선 김리아와 존슨앤드존슨의 카빅티가 허가됐고, 모두 혈액암 대상이다. 고형암으로 승인받은 CAR-T 치료제는 없다. 고형암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고형암의 항원이 다양해서다.

혈액암과 달리 고형암은 CAR-T 세포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항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 CAR-T 세포가 혈관 내피를 통과하기 어려워 종양 세포에 침입하기 어렵고, 면역억제적인 종양 미세환경으로 CAR-T 치료제의

기업명	후보물질	적응증	개발 단계
큐로셀	미정	전립선암, 폐암	비임상
애플론	AT501	위암	비임상
베리스모	SynKIR-110	난소암, 중피종, 담도암	임상 1상
유틸렉스	EU307	간세포암	임상 1상
박셀바이오	Vax-CAR-T	위암, 간세포암	비임상
HK이노엔	IN-B00003	미정	비임상

※ 출처: 각사

활동이 제한된 점도 고형암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이유다.

국내에선 고형암 적응증 확대 연구가 꾸준히 있다. 애플론은 최근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고형암 CAR-T 치료제 AT501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AT501은 암 단백질만을 추적하는 HER2(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기반으로 위암이 적응증이다. 회사는 HER2를 CAR-T 치료제와 함께 투여하며 강력한 항암 활성 효능이 지속됨을

동물모델에서 확인했다.

국내 첫 CAR-T 치료제 품목허가에 도전하는 큐로셀은 PSMA, B7-H3 단백질을 타깃해 전립선암과 폐암을 적응증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다.

HLB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후보물질 SynKIR-110에 대한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적응증은 난소암, 중피종, 담도암이다. SynKIR-110은 자연살해세포(NK세포)에서 발견되는 수용체(KIR)를 암

세포에 살상 능력이 있는 T세포에 삽입시킨 CAR-T 치료제다.

유틸렉스는 간세포암 환자 대상 CAR-T 치료제 EU307을 개발한다. 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이며, 지난해 9월 첫 투약했다. 박셀바이오는 위암, 간세포암 등을 적응증으로 고형암의 대표적 암 표지자인 PD-L1과 EphA2 두 가지를 동시에 표적하는 CAR-T 치료제 특허를 출원했다. HK이노엔은 자체 연구과제로 고형암 CAR-T 치료제 IN-B00003 개발에 나섰다. CAR-T세포에 면역관문인자 HLA-G의 활동을 억제하는 항체를 접목했다. 비임상을 진행 중이며, 임상 1상 진입이 목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형암과 혈액암 CAR-T 치료제는 암 항원을 찾아 공격하는 콘셉트는 같다. 다만 고형암 항원은 다양해 관련 항원을 찾아낼 수 있는 항체 개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imfactor@

"신장암, 누구나 걸릴 수 있어... 초기 발견 땀 완치율 98%"

인터뷰

박인근 서울아산병원 교수

"신장암은 '착한 암'이 아니고, 누구나 운이 없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장암의 예후와 원인에 대해 묻자 돌아온 박인근 서울아산병원 중앙내과 교수의 답이다. 그는 "신장암은 갑상선암과 함께 이른바 '착한 암'으로 불리지만, 환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환자에게 "발병 원인에 집착해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본지는 14일 인천 아바파크호텔에서 열린 국제신장암연합(İKCC) 국제콘퍼런스에서 박 교수를 만나 국내 신장암 치료 환경 개선점에 대해 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착한 암'으로 불리지만 오해 많아 발병 원인 집착 말고 치료 집중을

2022년 신장암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내 환자는 3만9165명에 달했다. 이는 2018년 3만563명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박 교수는 "신장암은 2019년부터 국내 빈발하는 암 중 10위에 올랐다. 1~2위를 다투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보다는 환자 수가 적지만, 증가세는 명확하다"며 "신장암 조기 발견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하는데, 국가검진에 포함되거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접근성은 낮다"고 아쉬워했다.

신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8%에 달할 정도로 예후가 좋다. 하지만, 예후가 좋다고 '착한 암'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 박 교수의 견해다. 그

는 "세상에 착한 암은 없다. 신장암 역시 전이가 되지 않거나, 느리게 자라는 암이 결코 아님에도 오해가 있는 듯하다"며 "국내 신장암 치료 성과가 지금까지 우수해 전진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장암은 발병과 진단 모두 '우연히' 이뤄진다. 흡연, 비만, 식습관 등은 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또 신장암은 말기에 이르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다. 박 교수는 "신장암 원인을 명확히 하나로 정리할 수는 없다. 예방을 위해 체중을 감량하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 등 생활습관을 교정하려는 사람들이 흔한데, 암은 우연히 걸리는 것이 환자 탓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자들은 우연히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평소 건강관리를 제대

로 하지 못해서라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이 박 교수의 우려다. 그는 "환자들은 대부분 진단된 이후에 인터넷에서 신장암의 원인을 검색하고, 그간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 반성하거나 자책하며 힘들어한다"며 "병에 걸린 것의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고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환자들의 정서적인 안정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적극적인 검진을 가로막는다. 박 교수는 "환자가족들에게 유전자검사를 권하면 굉장이 꺼린다. 유전성 질환에 대한 편견이 큰 걸림돌"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그는 암의 원인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현재까지 알려진 암의 원인은 사후에 집계한 통계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 질병에 걸린 것을 죄와 같이 취급하고 환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박인근 서울아산병원 중앙내과 교수가 인천 아바파크호텔에서 열린 국제신장암연합 국제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뀌어야 한다"며 "환자들은 반성하고 후회하며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고, 앞으로의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인천=글·사진 한성주 기자 hs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올고 웃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함선경 매니저

정혜리 대표

이호찬 팀장

세종시 조치원읍 '리리' 팀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금융비용 절감 지원

실패 없는 도전을 위한
청년 창업 컨설팅 지원

지역과 상생을 위한
지역 상권 살리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100년간 1위 'K-소주' 비밀... 오크통에 담겨있었네

프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국내 최대규모... 참이슬·진로 생산 오크통 5000개 총량만 160만. 달해 차별화한 양조기술로 다른 맛 구현 "새로운 100년위해 연구개발 강화"

축축한 봄비가 내리는 11일 오전. 하이트진로 100년 역사의 뿌리적인 경기이천시 부발읍 이천공장으로 향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천, 마산, 청주, 익산 총 4곳의 소주 공장과 강원, 전주 2곳의 맥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1983년 건립된 이천공장은 국내 소주 공장 중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50년 동안 국내 소주 시장 점유율 1위인 '참이슬'을 비롯해 '일품진로' 등 하이트진로의 증류주 대표작을 생산하는 곳이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목통(오크통) 숙성실'. 입구의 문이 열리자 진한 오크(oak)향이 밀려나왔다. 천장까지 뻗고

쌓인 오크통을 보니 마치 위스키의 본고장 스코틀랜드에 온듯 했다. 이곳의 오크통은 무려 5000개로, 국내 최대 규모다. 용량은 각 200리터(ℓ)로, 숙성 총량만 160만 리터에 달한다. 여기에 든 술이 바로 하이트진로 100년 소주 역사의 핵심 프리미엄 제품인 '일품진로'의 소주 원액이다. 하이트진로는 일품진로의 숙성을 위해 오크통 전량을 미국과 프랑스에서 사들였다.

1924년 증류식 소주 '진로'를 출시한 하이트진로는 1965년 쌀로 술을 빚는 것을 금지한 양곡관리법으로 인해 희석식 소주로 전환했다. 그러다 2007년 다시 일품진로를 출시, 증류식 소주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증류식 소주는 △일품진로 △진로1924 헤리티지 △일품진로 오크43 △일품진로 23년산 등 총 4종으로, 차별화한 양조 기술로 각기 다른 맛을 구현했다. 올해는 24년산과 100주년 기념 이벤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영규 하이트진로 이천양조팀 증류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목통 숙성실.

사진제공 하이트진로

제조파트장은 "일품진로와 진로1924 헤리티지 모두 쌀이 원료인데, 헤리티지의 경우 100%이천쌀을, 일품진로는 국내산 일반쌀을 각각 사용한다"고 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인 하이트진로는 '좋은 술에는 역사가 담겨 있다'는 철학 아래, 끝없는 도전과 혁신의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1974년 개소한 국내 최초 증류 연구소인 '진로연구소'를 시작으로,

2011년 하이트와 진로의 합병으로 '하이트진로연구소'로 재탄생, 양조 기술력이 한 단계 성장했다. 하이트진로연구소는 현재 △양조 효모 최다 보유 △균주개발 기술 확보 △자생 효모 발굴 연구 △발효·숙성·증류 기술 보유 △부산물 활용 연구 △미생물 분석 기술 확보 등 국내 증류 업계 중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이트진로는 명실상

부 대한민국 대표 증류 기업이 됐다. 그 비결은 '최초'와 '1등' 타이틀 제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테라', '켈리', '필라이트', '참이슬', '과일소주(에이슬 시리즈)' 등은 100년 연구개발의 산물이다.

하이트진로는 그간 축적한 증류 양조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주류개발 강화 △식품 안전 강화 △기초 연구 강화 △신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2025년 경기 용인에 '통합연구소'를 준공해 대한민국 최초의 증류연구소에서 최고의 종합증류연구소로 도약할 방침이다.

전장우 하이트진로연구소장은 "통합연구소는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기존 연구소가 이전할 계획"이라며 "소주, 맥주뿐 아니라 청주와 위스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식품 안전 분야까지 강화하는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천=김유연 기자 kyy0907@



신세계, 성수동에 니치향수 '메모파리' 팝업 개점

신세계백화점은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하는 프랑스 니치향수 브랜드 메모파리(MEMO PARIS)가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성수동 성수동에 프렌치 호텔 콘셉트의 팝업 스토어 '메모 그랜드 호텔'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메모파리의 신제품 '카파도키아 오드 퍼퓸'을 비롯해 한정판 향수 4종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화려하고 감각적인 바로크 양식의 호텔을 연상시키는 만큼, 방문 고객은 이국적인 장소로 상상의 여행을 떠나는 듯한 설렘을 느낄 수 있다. 팝업 기간 전 품목 10% 할인·가격대별 증정품 등 혜택을 제공한다.

PB 위스키부터 사케까지 편의점 4사, 酒도권 치열

최근 3년간 증류주 카테고리 매출 증가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대용량·가성비 내세워 소비자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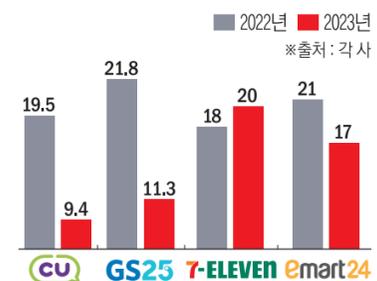
편의점업계가 자체 증류주 브랜드와 새로운 주종을 잇달아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홈(HOME)술 트렌드로 편의점이 증류주 판매 핵심 채널로 부상하자, 업계의 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증류주와 함께 가정간편식(HMR), 안주 등 연계상품 동반 판매를 통해 매출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최근 업계 최초로 양주 자체 브랜드(PB) '프레임'을 론칭했다. 대표 상품은 △프레임 아메리칸 위스키(200ml·1L) △프레임 아메리칸 보드카(1L) 등이다. 프레임은 믹솔로지(Mixology) 트렌드를 반영해 대용량·가성비가 최대 장점. 하이볼이나 칵테일 1잔에 약 30ml 위스키나 보드카 원액을 넣는데, 프레임 1리터의 경우 약 33잔을 만들 수 있다.

편의점 GS25는 증류주 신종 트렌드로 떠오른 사케 제품을 내세웠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케 수입액은 2138만 달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GS25 증류주 카테고리 매출을 보면, 올해 1분기 사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배 늘었다. 이에 GS25는 사케 상품 수 및 특화 매장을 확대한다. 사케 취급 상품 수를 지난해 말 120여 종으로 늘렸다. 또한 기존 매장 대비 사케 품목이 30여 종 이상 많은 사케 특화 매장은 현재 1000개 점포에서 연내 2000여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천원 맥주'로 승부수를 띄웠다. '버지미스터(500ml)'를 약 35% 할인가인 4천 400원에 판매한다. 고물

편의점 증류주 카테고리 매출 신장률 (단위: %, 전년 대비 기준)



편의점 안주류 매출 신장률 (단위: %, 2023년, 전년 동기 대비)



가에 가성비 맥주로 소비자를 공략할 계획이다. 이마트24도 이달 업계 단독으로 칵테일 '크누트한센 진토닉'을 출시했다. 독일의 프리미엄 드라이진인 '크누트한센'에 토닉을 섞은 것으로, 진함유량이 많아 고급스러운 맛이 특징이다.

편의점업계가 증류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출 증가'와 '연계상품 판매 효과' 때문이다. CU의 최근 3년 증류주 카테고리 매출 신장률을 보면 전년 대비 △2022년 19.5% △2023년 9.4%로 지속 성장세다. GS25 역시 △2022년 21.8% △2023년 11.3%로 증류주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다. 세븐일레븐도 △2022년 18% △2023년 20%로 매년 증가세이며, 이마트24도 △2022년 21% △2023년 17%로, 전년 대비 증류주 매출이 늘고 있다. 안주류 매출도 동반 상승세다. CU와 GS25의 작년 안주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 16.4% 늘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각각 20%, 27% 신장했다.

문현호 기자 m2h@

현지서 갓 담은 '비비고 김치', 세계인 입맛 사로잡는다

CJ제일제당이 북미에 이어 호주까지 현지에서 김치 생산력을 확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

CJ제일제당은 호주 현지에서 생산한 '비비고 썰은 배추김치' 2종(400g·900g)을 처음 선보이고 기존 한국에서 호주로 수출하는 김치도 리뉴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현지 생산 김치는 갓 담은 김치에 대한 호주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다. 그간 호주에선 한국에서 수출한 김치만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현지 원재료로 생산된 호주산 김치를 에스닉 마켓(Ethnic market)에 입점하게 됐다. 기존 수출 김치 제품 10종도 재단장했다. 김치의 신선함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도록 차별화된 발효 기술력으로 식

감을 살리고 최적의 숙성도를 구현해냈다. 리뉴얼한 제품도 2월 현지 에스닉 마켓에 입점했으며 이달부터 현지 대표 메인 채널인 '울워스(Woolworths)' 일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CJ제일제당, 호주·북미서 생산 식감살린 '썰은 배추김치' 첫선 美 제조업체 인수... 생산력 확대

CJ제일제당은 북미에서도 현지 생산 김치를 선보이고 있다. 북미 시장 판매를 늘리기 위해 현지 김치 제조업체를 인수하며 자체 생산 역량을 갖췄다. 비비고 김치는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4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향후 다양한 신제품으로 핵심 메인 채널까지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를 미국, 일본, 베트남, 유럽, 호주 등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 수출하며 김치 세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비비고 김치의 글로벌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일본(31%), 유럽(25%) 등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현지 김치 시장에서 62%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임희정 CJ제일제당 김치담당은 "고수김치, 100% 식물성 원료 비건 김치 등 각 국가별 소비자 요구를 분석해 다양한 현지화 제품군을 확보한 점도 주효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ij42@

아낌없이 주는 혁신금융그룹장 “벤처의 성공 거름 될 것”

★ ‘은행의 별’을 말한다

⑤ 김인태 IBK기업은행 부행장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의 혁신 금융그룹장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 기업들을 발굴해 이들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인태 기업은행 혁신금융그룹장(부행장)은 최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집무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은행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초기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중기 육성 경험, 성공적인 벤처·스타트업 육성의 거름 될 것” = 기업은행은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IBK 벤처투자’를 공식 출범했다. 국책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벤처투자자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김 부행장이 지난해 혁신금융그룹장으로 취임한 후 공을 들인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인 것이다.

IBK벤처투자는 1000억 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5000억 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과감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부행장은 “김성태 행장께서 기존보다 1조 원을 더해 2조5000억 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시며 힘이 실렸다”면서 “모험자본 자체가 위험가중치가 400% 수준인데 최고경영자(CEO)가 이런 결정을 해 준 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해 내야 할 책임이 내게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금리 장기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 지금, 기업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는 김 부행장. 그는 기업은행이 그동안 수많은 중소기업을 키워낸 경험이 있고, 지원해 왔기에 실질적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에도 강점을 지니고 피력했다.

김 부행장은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



김인태 IBK기업은행 혁신금융그룹장(부행장)이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앞장 국책銀 첫 벤처투자 자회사 설립 1월까지 혁신창업기업 707개 육성

시장을 보면 벤처캐피탈(VC)에서도 성숙기 기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며 “문제는 초기 창업 기업으로, 이들에 대한 투자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IBK 벤처투자가 시드 단계부터 시리즈A 투자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해서 키워놓으면 향후 VC 등의 추가 투자가 이뤄지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성장시키느냐다. 이같은 고민이 토대가 돼 나온 결과물이 기업은행이 올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IBK벤처·스타트업 종합지원센터’다. IBK벤처·스타트업 종합지원센터는 벤처·스타트업에 투·융자 복합지원과 전문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의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부행장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종합 지원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키워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직은 1차 보고만 마친 상태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의 세팅이 끝나면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혁신금융그룹은 주도하고 있는 창업육성 종합 프로그램 ‘IBK창공’을 통해 올해 1월 기준 707개의 혁신창업기업을 육성했다. IBK창공 졸업기업들도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각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후속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촘촘한 후속 관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기업은행이 직접 투자하는 창업기업만해도 300개가 넘는다.

하반기 ‘종합지원센터’ 문열어 단순 지원 아닌 지속성장 관리 한달에 한번 모험자본전문가 강연

그는 “단순히 초기 투자 지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벤처·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들 기업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 역할을 IBK벤처·스타트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면 더 많은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는 전략이나 정책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빠른 변화 환경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 1990년 9월 기업은행에 입행한 김 부행장은 33년 만인 지난해 1월 부행장의 자리에 앉았다. 업무지원부장, 직원행복부장, 총무부장, 기업고객부장, 남부지역본부장, 경서지역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쳤다.

김인태 부행장 프로필

1990년 9월	IBK기업은행 입행
2011년 1월	화성정남기업성장 지점장
2013년 1월	업무지원부장
2014년 1월	직원행복부장
2017년 1월	총무부장
2018년 7월	기업고객부장
2020년 7월	남부지역본부장
2021년 7월	경서지역본부장
2023년 1월	혁신금융그룹장(부행장)



어느새 ‘은행의 별’ 2년 차가 된 그는 “부행장은 권한도 많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며 “혁신금융그룹장으로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미래 성장성이 큰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해야 하는데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고 했다.

이런 책임감 때문일까. 그는 항상 배움에 목마르다고 했다. 그가 혁신금융그룹장을 맡은 후 한 달에 한 번씩 모험자본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 부행장은 “특별한 약속이 없는 직원들을 다 모아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심사역들을 초청해 현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투자 심사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의 이야기를 듣고 시야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은행권에도 컨설팅 담당 파트가 있는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인공지능(AI)을 내재화한 솔루션을 제공하면 사람들이 한참을 고민해서 만들 것을 몇 분 만에 만들어내지 않나. 결국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 직원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도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車보험 영업의 16% ‘쑥’... 3년 연속 흑자행진

작년 가입대수 61만대 ↑ 2541만대
손해율은 80.7%로 0.5%p 개선
‘빅4’ 점유율 85%... 과점 더 심화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6% 늘어나면서 3년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도 2500만 대를 훌쩍 넘어섰다. 반면 대형 손해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 증가하면서 과점 구조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5539억 원으로 전년(4780억 원) 보다 15.9%(759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달성이다. 2001년 이후 15년 연속 적자행진을 벌여온 자동차보

험은 2017년 16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가다시 3년 연속 적자를 딴 2021년 흑자로 돌아섰다.

국내 12개 손보사의 이 기간 자동차보험 보험료 수입 기준 시장규모는 21조 484억 원으로 전년보다 2810억 원(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보험 가입대수는 2541만 대로 전년보다 61만 대 증가했다. 사고율이 15%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극한호우가 발생했던 전년보다 침수피해가 급감하면서 손해율이 개선됐다. 작년 발생손해액을 연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7%로 전년(81.2%)보다 0.5%포인트(p) 개선됐다.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 484억 원으로 가입대수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20조 7674억 원)보다 2810억 원 증가했다.

삼성·현대·KB·DB 등 대형사의 시장

점유율은 85.3%로 지속 증가(0.4%p)한 반면 메리츠·한화·롯데·에이·흥국 등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8.4%로 전년보다 0.5%p 줄면서 과점구조가 다소 심화됐다. 캐롯 등 비대면 전문가(약사·하나·캐롯)의 시장점유율은 6.3%로 전년보다 0.1%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별 판매 비중은 대면 49.7%, 온라인(CM) 33.8%, 통신(TM) 16.5% 순으로 대면 채널 감소 및 CM 채널 증가 추세 지속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영업실적이 시현되고 있는 만큼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태영건설 기업개선 계획, 내일 윤곽 나온다

산은, 주요 채권단 18곳에 설명회
대주주 등 출자전환 7000억 추정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6일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은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심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했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PF 사

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와 처리 방향,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실사 결과 PF 사업장 59곳의 사업 진행, 시공사 교체, 경·공매 등 처리방향이 정해진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확충 방안에서는 대주주 감자와 출자전환이 핵심으로 꼽힌다. 대주주 무상감자는 워크아웃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보인다. 앞선 건설사 워크아웃 사례에서는 쌍용건설에서 50대 1로 무상감자가 단행했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6356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만큼 채권단과 대주주의 출자전환은 7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은 측은 채권단 회의 후 날짜를 확정해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플랜 '지지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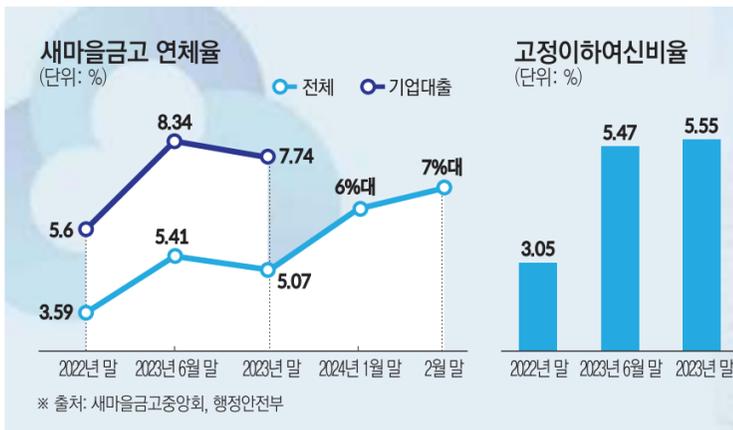
MCI대부 추가 매각안 고심

증자 통한 채권매입여력 확대 검토
중앙회 손자사로 유일한 매각 채널
총자산, 자기자본 10배 초과못해
유암코 합류 예상했지만 논의 안돼
금고자산관리 설립도 시간 걸릴 듯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 매각 플랜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등 부실자산 처리 채널과의 NPL 매각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올해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 부실채권을 추가 매각을 검토 중이지만, 10조 원을 웃도는 전체 NPL 규모를 털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CI대부가 지난해 1조 원 정도를 매입했고, 현재 매입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증자 등을 통해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늘리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MCI대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회



사인 'MG신용정보'의 자회사로, 부실채권 매입·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대부업법에 따라 MCI대부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기준 MCI대부의 자기자본은 1500억 원으로, 부실채권 매입 한도가 1조5000억 원 수준이다.

중앙회가 MCI대부 추가 매각방안을 고심 중인 것은, 현 상황에서 부실채권을 털어낼 수 있는 채널이 MCI 대부밖에 없어서다. 지난해 말 중앙회는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캠코에 최대 2조 원, MCI대부에 최대 1조 원 등 총 3조 원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MCI대부에 1조 원, 캠코에 1조 원가량의 부실채권 매각을 완료했다.

연체율 6~7%대로 급격히 올라 부실채권 늘면 증당금 추가 설정 자기자본비율 낮아져 신용도 하락 '하반기 돼야 건전성 개선 효과'

그러나 나머지 1조 원어치 추가 매입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매각 물량, 캠코의 인수 물량을 따져 할 수 있는 만큼 매입을 완료했다"면서 "올해 금융위와 논의 중인 추가 인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유암코도 합류할 것으로 예



상했지만, 더딘 상태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채권 매각의 가장 큰 채널은 MCI대부와 캠코이고, 유암코는 '새로운 채널 확보' 차원에서 매각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며 "유암코가 조성하는 펀드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중앙회 측은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은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중앙회와 개별금고의 연체 등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담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

의했고 지난해 11월 말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안건으로 올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음달 30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 이후 22대 국회가 다시 발의, 심의해야 한다.

문제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 NPL 매각 처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있다.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면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설정해야 하고, 재무구조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BIS)도 낮아져 신용도가 떨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1290개에 달하는 전국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올해 6~7%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5.07%보다 1~2%포인트(p)가량 올랐다. 2022년 말(3.59%) 대비 1년 새 1.48%p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중앙회 측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전 금융권 연체율이 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개정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가 매각 규모가 정해지고 (건전성 지표 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하반기는 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하영 기자 haha@

쌓여가는 매물에도 작년 M&A '0'... 올해는 큰장 열릴 듯

몸값 높아지는 보험사, 새주인 찾을까

지난해 쌓여 있는 매물에도 인수합병(M&A)이 '0' (제로)이었던 보험업계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다 새롭게 바뀐 회계제도(IFRS 17)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다. 또한, 비은행 강화 필요성이 있는 금융지주사들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차례 공개 매각이 불발된 MG손해보험의 예비입찰에 사모펀드(PEF) 운용사 두 곳이 인수의 향서를 제출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2개사 이상이 예비입찰에 참여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즉, 공개매각 예비입찰 유효 조건이 충족하면서 세 번째 매각 시도가 가능해진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주 이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2곳, MG손보 예비입찰 '알짜 매물' 롯데손보 최대어 점쳐 '비은행 강화' 금융지주 나설수도 ABL생명·동양생명도 매물 나올 듯

다음달 중순까지 한달 간 예비실사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본입찰은 실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이나 6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전과 달리 예보가 자금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에 새 주인 찾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예보 관계자는 "MG손보는 지난해 2월엔 입찰자가 없었고, 8월엔 1개 회사만 입찰에 뛰어들어 유찰됐는데 이번에 공사 자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경쟁 입찰이 성립됐다"고 말했다.

MG손보의 매각 시도가 탄력을 받으면서 매물로 거론되는 보험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롯데손보 협의의 경우 현재 가장 알짜 매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손보의 자산은 14조8429억 원으로 손해보험업계 7위를 기록했다. 매각가는 2조~3조 원으로 매물 중 '최대어'로 점쳐진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영업이익 3973억 원, 당기순이익 3024억 원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3966억 원으로 전년(1조6774억 원) 대비 42.9% 성장했다.

롯데손보의 매각 주간사인 JP모건은 주요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예비원매자들에게 투자설명서(IM)를 발송 후 매각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금융지주사들이 비은행 부문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이들이 본

롯데손해보험 매각 개요



격적으로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롯데손보가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대표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매각설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지난해 매각이 추진됐던 ABL생명보험도 올해 또다시 매물로 나올 수 있다. 동양생명도 인수합병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 매물로 거론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매력적인 매물로 꼽히는 만큼 올해 안에 금융지주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롯데손보의 매각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jsw@

금융권 '은행 가치 제고 방안'

〈2022년〉 〈작년〉
금융경쟁력 23위→36위
"후진적 규제 없애야 기업가치 높아진다"

국내 금융지주 체제의 은행그룹이 시너지를 발휘하려면 최대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대에 동떨어진 규제가 금융사의 기업 가치를 낮춘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책 및 감독 당국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금융회사의 미래가 결정되고, 이는 기업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IMD)에 따르면 국내 금융 부문 경쟁력은 64개국 중 2022년 23위에서 지난해 36위로 하락했다. 은행 규제 준수 부문은 2022년 기준 63개국 중 35위로 인도, 대만, 칠레, 카타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18년까지 발표됐던 금융 및 은행규제의 공정성 부문은 평가대상 63개국 중 59위로 중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 아르헨티나보다 떨어졌다.

김선임 연구위원은 "모든 규제를 철폐할 수 없지만 불필요하거나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국민銀 알뜰폰 '리브모바일' 첫 정식 부수업무 지정

금융권, 비금융사업 진출 활발해지나

KB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제1호로 지정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알뜰폰 사업자 최초의 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함 할인 제공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을 선보이며

알뜰폰 이미지 제고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현재까지 42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며 소비자리처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하는 반기별 이통통신 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KB리브모바일의 부수업무 지정은 은행권이 이종산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

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알뜰폰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립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도 알뜰폰 사업 진출 여부 등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진행 중인 신한은행의 배달 앱 '뽕겨요'도 조만간 2호 부수업무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 관측도 제기된다. 뽕겨요의 혁신금융서비스 기간은 올해 12월 21일까지다. 뽕겨요는 서울시를 넘어 전국구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가입 고객 수도 300만 명에 달한다. 이재영 기자 lry0403@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서 은행권의 비금융 분야 진출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 전망이다. 당장 국민은행처럼 알뜰폰 시장 진출이 가장 유력하고 빌리티, 헬스케어, 부동산 등도 은행권 진출이 유망한 곳으로 꼽힌다.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뽕겨요'도 대표적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비금융 진출 사업이다.

1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KB리브모바일'의 은행 부수업무지정을 12일 공고했다.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이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뭉치돈 어디에 굴릴까?”... 생각하는 개미

안갯속 증시, 뚝뚝한 투자처는

동학개미(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증시 주변을 맴돌고 있다. (중동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 지연에 대한 우려와 22대 국회가 다시 ‘여소야대’로 고착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단기 금융 상품에 머물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들은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11조3140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하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증시 주변을 맴도는 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일 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을 포함한 투자자에 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잔액, 신용거래용자, 신용거래대주자금 등 전체 증시대기자금은 173조4900억 원을

‘중동리스크’美 금리인하 지연 ‘여소야대’로 불확실성 커지자 증시대기자금 173.5兆 달해 “낙폭과대株 중심 접근 적절”

기록했다. 이달 1일(174조5017억 원)보다 약 1조 원 줄었지만, 여전히 173조 원을 웃돌고 있다.

특히 대고객 RP 매도잔액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RP는 증권사가 일정 기간 후 환매(다시 매수)한다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단기 파킹형 상품이다. RP 매도잔액은 8일 86조9920억 원으로 2022년 6월 이후 670일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

신용거래용자 자금지연초 17조 원대에서 11일 19조3640억 원으로 2조 원가량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

록했다. 신용거래용자가 늘었다는 것은 투자자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도 81조9719억 원을 기록했다. 10일 81조9223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셈이다. 이중 대다수는 개인투자자(69조8458억 원) 자금이다. 개인투자자 자금은 CMA 잔액 규모의 85.3%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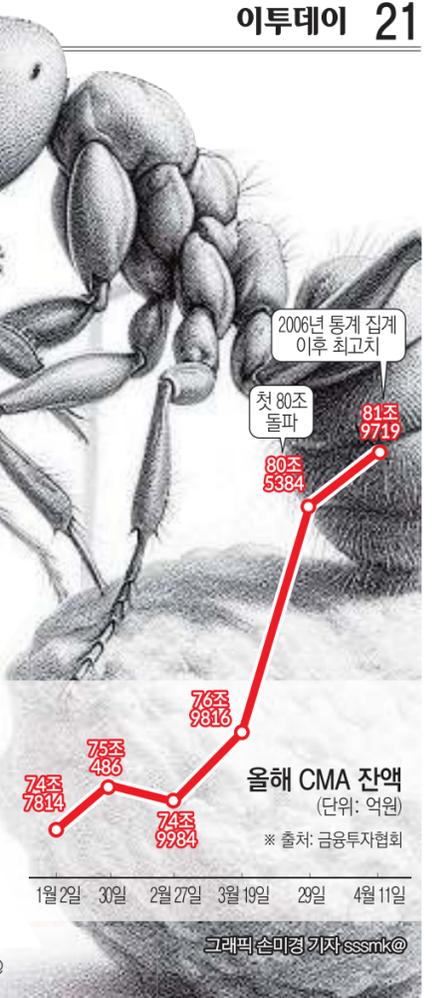
이는 만기가 도래한 예·적금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달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처음으로 도래해 시중으로 자금이 대거 풀렸다.

시중자금을 무섭게 빨아들였던 은행 정기예금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금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3조3761억 원으로 한

달 사이 13조 원가량 줄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증시로 주변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향후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출현하는 기간 조정을 이용해 이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양호한 이익 모멘텀을 고려한 낙폭 과대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주를 중심으로 매수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정희인 기자 hihello@



은행, 홍콩 ELS 배상 시작했는데... 증권사는 ‘깜깜무소식’

하나·신한 이어 국민銀 절차 돌입 한국투자·미래에셋 등 6곳 계획無 증권사 통한 가입자들 ‘속앓이 중’

#2021년 5월 신한투자증권 지점을 통해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60대 김 모 씨. 현재 그의 손실률은 44%에 달한다. 김 씨는 “내가 이 돈은 전세금이라 절대 원금을 잃으면 안 된다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지점에서 당시 H지수 ELS를 원금 보장 상품으로 안내했다”며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실 없다”는 설명에 가입했다가 일상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증권사에 불안전판매 관련 민원을 넣고 물어봐도 기다리라는 말만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H지수 ELS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속앓이하고 있다.

금감원이 홍콩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이후 은행들의 자율배상이 시작되고 있지만 증권사들의 관련 배상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 중에서 자율배상 계획이 있거나 관련 절차에 돌입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는 금

감원이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한 곳들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홍콩 지수 ELS와 관련해 불안전판매 정황이 확인된 판매사들에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판매원칙 위반 여부, 내부통제 부실 정도를 따져 판매자 요인(23~50%)을 고려한 뒤 ELS 투자경험, 금융상품 이해도 등 투자자 요인(±45%)을 가감해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은행은 자율배상위원회, 이사회 등을 열고 자율배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상 관련 안내를 아예 받지 못한 증권사 가입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한다.

증권사를 통해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율배상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50대 가입자 이 모 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월 미래에셋증권 대치지점을 통해 H지수 ELS에 가입했다가 각각 50%가 넘는 손실을 봤다. 이 씨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발표 이후 해당 증권사로 배상 관련 문의를 수차례 남겼지만 “아직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결정된 게 없다”, “일단 금감원 민원을 접수하라”는 형식적 답변을 들었다. 그는 “분쟁조정안에 증권사도 포함이 됐는데 자율배상 논의는 은행권에서만 다뤄지고 있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대신증권 지점을 통해 가입한 40대 정 모 씨는 “묵묵부답이다. 최소한 앞으로 배상 원칙이나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설명은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증권사는 민원 규모가 크지 않아 개별로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들어오는 민원을 추려서 검토하고 개별 배상을 논의해 볼 것”이라며 “규모가 크지 않아 이사회나 자율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판매 규모 중 90%는 온라인 판매라 부실 설명 책임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 위험성을 아는 사람들, 재가입자가 대다수 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다 보니 불안전판매 정황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기자 ssook@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의 세 번째 시리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 40·50세대 맞춤 주거 가이드

‘은퇴 후 평생 살 집’

매일 밤 11시, 당신이 잠 못드는 시간, 미래를 위한 주사위를 던져보세요

‘dice@11pm’의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 평생 살 집”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인생 2막을 앞두고 라이프스타일의 변곡점을 맞은 40·50세대는 여생을 보낼 집을 찾고자 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이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dice@11pm’은 세 번째 이야기로 노후 주거지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단독주택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귀농귀촌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프리미엄 실버타운까지 다양한 주거 유형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맞는 집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후기청년의 노후 준비 <dice@11pm>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후기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 시리즈 매일 밤 11시, 미래에 대하여 많은 불안과 고민을 안은 40대 이상을 위해 인생의 지침서를 제공하려 합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 책 한 권에 집약했습니다. ‘dice@11pm’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지면 구성구석 준비된 QR코드는 독자들을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안내합니다.

은-오-프라인 전국서점 판매예정

이투데이퍼낸서 | BRAWO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부 지음 | 166쪽 | 16,000원

“집값 상승 열차 올라타자”...경인 지역 ‘갭투자’ 꿈틀

2월 이후 수도권 갭투자 건수
화성시 52건·수원 영통구 36건
서울, 상위 10곳 중 하나도 없어
시세차익 매수에 실거주 수요
전세가 올르고 매매가 정체
일부 지역선 ‘無갭투자’도 확인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이용한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수도권 기준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6월 마지막 주부터 41주 연속 올라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이를 이용해 일부 지역에선 무(無) 갭투자까지 포착됐다.

1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

인천) 지역에서 최근 3개월(2월 1일 이후)간 갭투자가 몰린 지역 상위 10곳 가운데 서울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갭투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화성시로 총 52건의 갭투자가 이뤄졌다. 이어서 2위는 수원시 영통구 36건, 3위는 인천 서구 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10위 권에는 시흥시(31건)와 남양주시(29건), 인천 연수구(26건), 하남시(25건), 안양 동안구(23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주거 환경이 우수한 신도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린 매수뿐 아니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값이 더 오르기 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로 해석된다. 여기에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지 일 단 전세를 안고 집을 사놓으려는 불안 심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서동탄역파크자이2차’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15일 5억 3000만 원에 매매된 뒤 3억 7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또 남양주시 ‘다산 e편한세상자이’ 전용 84㎡형은 지난 2월 24일 8억 5000만 원에 팔렸고, 사흘 뒤인 27일 전세 7억 2500만 원에 신규 전세 계약을 썼다.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서도 지난 2월 ‘송도웰카운티1단지’ 전용 101㎡형이 전세 보증금 5억 원 계약을 썼다. 갭은 1000만 원에 불과했다.

일부 지역에선 무갭투자도 확인됐다.

인천 서구 ‘우성’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6일 2억 5000만 원에 팔린 뒤, 같은 날 같은 값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또 시흥시 정왕동 ‘대림1단지’ 전용 59㎡형은 지난 2월 16일 2억 4000만 원에 매매됐다. 이후 열흘 만에 매매가보다 1500만 원 비싼 전세 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계약을 쓰면서 ‘마이너스 갭투자’가 발생했다.

최근 경인지역은 전세가율이 오르고 매매가는 정체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갭투자에 유리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기준 64.1%로 집계됐다. 인천 역시 64.9%로 두 지역 모두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의 전세가율을 기록 중이다. 반면, 경기지역과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KB기준으로 2022년 9월 이후 줄곧 우하향하고 있다.

다만, 갭투자는 집값 상승기에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한 매수법임으로, 집값 하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위험 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이자 서울 아파트 대비 초기 투자 금액이 덜 들어가는 경인지역 가운데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최근 갭투자가 몰린 것”이라며 “하지만 집값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미반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세권이나 전·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면 갭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돈맥경화 풀리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온기 돌까

코로나19 엔데믹 후 부진을 겪었던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던 물류센터도 수급균형을 찾을 지 주목된다.

14일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를 중심으로 상업용부동산 대출금리가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울 프라임 오피스의 담보대출금리는 이미 4% 후반에 진입했다”며 “전년 대비 100bp 이상 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침체 장기화로 프라임 오피스와 A급 물류센터에 담보대출 실패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최근 대주들은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등 시장 금리 고점 인식이 강해짐을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마크자산신탁이 블랙스톤으로부터 매입한 서울 역삼역 인근 ‘아크플레이스’와 사학연급 새사옥으로 재건축되는 여의도 ‘TP타워’는 쿠폰금리 4% 후반에 대출이

강남·여의도 등 프라임 오피스
대출금리 4%대 후반으로 하락
순매수 의향 16% 아태국 최고
중 커머스 업체 국내 진출 영향
물류센터도 수급균형 찾아갈듯

실행됐다. TP타워 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까지 5% 초반으로 알려졌으나 이보다 낮았던 것이다.

국내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CBRE가 최근 발표한 ‘2024 한국 투자자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부동산 투자자의 순매수 의향이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국내 투자자 중 16%가 순매수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투자자 순매수 의향은 일본 8%, 싱가포르 8% 등이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이러한 현상은 우량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자금 유입이 재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국내 연기금과 증권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상업용부동산 펀더멘털 개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투자 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때 공급과잉이었던 물류센터 역시 수급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진출과 더불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 알리바바그룹이 한국에 약 18만㎡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고, 테무와 쉬인 등 업체도 국내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물류센터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급은 다소 감소했다. 2023년 연면적 5000평(1만 6500㎡) 이상 인허가를 완료한 물류센터는 100곳으로, 149건이었던 2022년 대비 33% 감소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용물류센터의 경우 C커머스 국내 진출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온물류센터는 여전히 수요가 낮다”며 “물류센터 투자는 2022년보다 나아지겠지만 확연히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히지은 기자 hje@

LH, 건설품질 혁신 위한 건설사 상생 간담회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2024년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LH 임직원 및 건설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 소통과 공공주택 건설품질 혁신을 위한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렸으며 안전·품질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 조성 및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국 LH 공사 현장 지구 관련 건설사 임원, 현장 책임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올해 건설공사 점검·평가 계획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사항 공유 △공공주택 주요 하자 저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서 참여 건설사의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024년 건설공사 점검·평가 혁신계획’ 발표에선 올해 품질관리 체계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하고, 건설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과 현장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품질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 위반사항, 부당특약 등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 불편 사항인 구조체 균열, 누수 등 공공주택 주요 중대 하자를 줄일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 중 농지지말야야할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하고, 최근 개편된 하자분류 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LH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설현장 애로사항과 규제·제도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금주의 분양캘린더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798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7980가구(일반분양 509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성남시 북정동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하늘채하이에르’ 등에서 청약의 진행한다.

전분주택을 여는 곳은 3곳이다.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진아레히’,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자이SK뷰’, 경남 김해시 ‘김해구산롯데캐슬시그니처’가 19일 전분주택을 오픈할 예정이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4/16 (화)	접수	경기	성남시	북정동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B3) 1순위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1·2·3단지) 1순위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하늘채하이에르 1순위
			부산	금정구	남산동	e편한세상금정메종카운티 1순위
			부산	기장군	장안동	부산장안지구디에트디오션(B3) 1순위
4/17 (수)	접수	경기	성남시	북정동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B3) 2순위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1·2·3단지) 2순위
			광주	서구	금호동	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2-1BL·1BL·2-2BL) 1순위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하늘채하이에르 2순위
			부산	금정구	남산동	e편한세상금정메종카운티 2순위
4/18(목)	접수	부산	기장군	장안동	부산장안지구디에트디오션(B3) 2순위	
			경남	김해시	구산동	김해구산롯데캐슬시그니처
4/19 (금)	오픈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자이SK뷰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진아레히(A23)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진아레히(A23)

(주1) 1순위 청약접수 및 전분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2)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R114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주택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아파트의 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 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2014년에 멈춘 시간... “안타까운 일 더는 없어야”



“여기 기억교실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생각날 때 들러요. 중학교담임 선생님이 참사로 돌아가셨거든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둔 11일 오후 경기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4·16 민주시민교육원 기억교실에서 만난 오세영(30) 씨는 이같이 말하며 익숙한 듯 기억교실 안을 거닐었다. 오씨는 “직장이 근처여서 아직 여기 안 와봤다는 동료를 데리고 들렀다”면서 답답히 말했다.

기억교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사용하던 교실 10개와 교무실 1개를 복원한 추모 공간이다. 건물은 총 4개 층으로 2층에 2학년 7~10반과 교무실을, 3층에는 1~6반 교실이 자리했다.

14일 4·16기억교실에 따르면 2021년 4월 단원고에서 옮겨와 개관한 기억교실에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만 명이 다녀갔고 올해는 이날까지 9000명이 찾았다. 기억교실 관계자는 “10주기 인이변달에는 단체 방문 예약이 많이 잡혀있다”고 밝혔다.

리포 세월호 10주기 '기억 교실'

숨진 단원고 학생·교사 기억하러 교실과 교무실 기억 공간 마련돼 매년 추모 방문객 등 3만명 발길 인근 기억저장소선 기록전 개최

각 반에는 학생들이 사용했던 책걸상과 사물함, 시간표 등이 복원됐다. 달력과 대학 입시 요강 안내표 등은 2014년 4월에 머물렀다. 책상 위에는 사진과 편지,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쓰인 나무패 등이 놓였다. 요리사를 꿈꿨던 한 학생의 책상에는 미래 요리사가 된 모습의 인형이 우뚝 서 있었다.

10주기를 맞아 서울에서 중국인 친구와 함께 기억교실을 방문했다는 송선형(23) 씨는 “참사 당시 뉴스를 보면서 ‘정말 실감이 안 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니 그게 정말 당시 있었던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송수운(25) 씨는 “안산에 살면서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둔 11일 오후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교실에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장래희망이 요리사였던 한 학생의 책상에 요리사 인형이 우뚝 서 있다.

한번도 안 와봤는데, 10주기 날짜다가와 친구랑 같이 추모하는 마음으로 들렀다”면서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돌이킬 순 없지만,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시흥 웃터골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 학습을 왔다는 학생들은 “책상 위 유품들을 보니 저절로 손이 공손하게 모아졌다”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모아

다. 추모를 위해 만든 나비 모양 학예품을 들어보인 신주하(11) 양은 “세월호를 꼭 기억하겠다는 뜻을 여기 담았다”면서 “희생자분들께 방명록도 직접 남겼다”고 전했다.

기억교실에서 1km 남짓 떨어진 4·16 기억저장소에서는 시민 기록전 ‘마을의 4·16’이 열리고 있었다.

이곳 관리자인 윤은정(56) 씨는 “참사 10주기를 맞아 마을 시민들이 기

록한 서로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10년간의 활동 내용들을 전시했다”고 소개했다. 전시장에서는 안산의 상록구 일동, 사동, 반월동, 단원구 와동, 고잔동 등 5개 마을에서 진행된 ‘이웃간 대화모임’, ‘밥 나눔 모임’ 등 마을 활동에 대한 소개가 이뤄지고 있었다.

천장에는 참사 희생자 304명을 기리는 ‘기억등’ 304개가 달렸다. 각 기억등 안에는 희생된 친구들이 갖고 있던 소품 등이 들어있었다.

윤 씨는 “이 기억 등에 들어 있는 1만 원짜리는 부모님이 수학여행 가는 아이 주머니에 넣어놨던 건데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던 것”이라면서 “이렇게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여기 전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사가 10년이 돼가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점차 줄고, 이 지역 자체가 재개발 구역이라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서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갖고 있는 4·16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서 전시를 해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글·사진 정유정 기자 oiljung@

마약사범 5년새 폭증... 檢 ‘리니언시’ 도입

신고 보상금 1억·제보엔 형벌 감면

최근 5년간 마약범죄로 단속된 인원이 약 120% 증가하고 압수량도 약 2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마약조직의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2018년(1만 2613명)에 비해 약 120% 급증했다. 연간 마약 압수량도 2018년 414.6kg에서 지난해 998kg으로 약 2.4배 늘었다.

수사 사례에 의하면,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일반화되고, 다수인이 점조직 형태로 가담하는 등 범행방식이

고도화, 조직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범죄조직의 마약 밀수가 증가한 점도 마약범죄가 급증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검찰은 마약범죄 신고 보상금을 현재 100만~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마약범죄가 발각된 이후 신고·검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마약사범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리니언시는 범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제도다.

대검은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봄날 '순삭' 여름 '직행'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역대 가장 더운 4월을 기록한 14일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더위를 달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교대, 지역인재 37% 선발... 3~4등급대도 합격권

13년 만에 전국 교육대학의 모집정원이 12% 감축된 가운데 올해 입시에서 지방 교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37%로 확대되면서 3~4등급대도 합격권에 들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0개 지역소재 교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37.1%(1066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전년도 33.8%(966명)보다 3.3%포인트(p) 높은 수치다.

학교별로는 △광주교대 48.8% △대구교대 46.8% △전주교대 40.1% △부산교대 39.8% △공주교대 39.4 순이다.

교대 모집정원 하향에도 종로학원은 내신은 2.8등급까지, 수능은 3~4등급대까지 합격권에 든다고 분석했다.

가장 최근 입학성적이 공개된 2023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에서 수도권 교대의 전국선발 평균 합격권은 1.6등급이었다. 비수도권 교대는 전국선발이 2.1등급, 지역선발 2.4등급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에서 비수도권 지역선발 합격자의 최저 내신은 2.7등급이었다.

학생부교과 전형에서도 수도권 교대 전국선발 평균 합격권은 1.6등급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국선발 평균 내신등급은 2.3, 지역선발은 2.8등급이었다.

정시의 경우 수도권 교대의 국어·수학·탐구 영역 백분위 평균은 87.2점인 반면 비수도권 교대의 지역선발은 77.8점을 기록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대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10% 청구 안 돼”

계약상 'VAT 별도' 기재 했어도 '명시적 약정 없으면 불가' 판결

부가가치세에 관한 명시적 약정 없이 'VAT 별도'라고만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10%를 부가가치세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건설업 간이과세자인 A 씨는 2021년

12월 B 씨와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5520만 원을 받았다. 이후 목공, 샷시 알미늄 등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계약 견적서에는 'VAT 별도'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A 씨는 공사대금의 10%인 552만 원을, B 씨는 3% 상당액인 165만 6000원을 부가세로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자영업자는 부가세를 낼 때 연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들은 10% 세율인데 비해 간이과세자들은 업종에 따라 1.5~4.0% 세율을 적용받는다.

결국 A 씨는 부가세 10% 미지급과 함께 추가로 진행된 공사대금 700만 원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가세 3%만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VAT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명시적,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자 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김이현 기자 spes@



IBK기업은행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어려워도 상생합니다”...건설업계, ESG 경영 박차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前 산업부 차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여전하지만 건설사들의 상생 행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업황악화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에서 지역사회와 공존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기부와 봉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달엔 식목일을 맞아 복수의 건설사가 관련 테마의 봉사를 실시했다. 먼저 HDC현대산업개발의 'A1 추진단' 소속 10여명은 이날 5·18 역사공원을 찾아 공원 환경을 더욱 푸르게 개선하기 위한 나무 심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식재한 나무는 애기동백, 은목서 등 총 22그루 규모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

HDC현산, 식목일 나무심기 롯데건설, 친환경 텃밭 조성 한신공영, 어르신 무료 급식 금호·쌍용은 소외계층 기부

PF 부실 등 잇단 위기설에도 지역사회 공존 상생행보 나서

기 위해 식목일을 맞아 환경을 개선하는 나무 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신규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임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롯데건설은 사룻데 봉사단과 ‘그린 팜(Green Farm)’ 친환경 텃밭 조성

나섰다. 그린팜은 서울강서구 등촌4중합사회복지관이 관할하는 친환경 텃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던 ‘탄소 감축 씨앗 심기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이번 봉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재배한 농산물은 올해 하반기 수확해 소외계층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한 끼 식사를 나누며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봉사도 있다. 한신공영의 사내 봉사단 ‘한신孝플러스봉사단’ 임직원과 가족 등 30여 명은 종로구 소재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소외계층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호반그룹도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호반그룹 경영진은 서초구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관내 어르신 130여 명을 초청해 직접 조리한 떡국을 배식했다. 또 경영진과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도

전달했다.

이밖에 기부도 활발하다. 금호건설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필벽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금호건설은 올해로 18년째 관련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5명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교 졸업까지 지원받게 된다.

쌍용건설은 임직원들의 참여로 모은 600만 원 상당의 기부금 및 물품을 평택시 내 아동보호시설인 ‘야곱의 집’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과 기부금은 야곱의 집에서 보호 중인 0세부터 3세 미만의 보호아동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박일준(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선임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상근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해 박 전 차관을 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1회로 1987년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국장, 소프트웨어정책관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박 상근부회장은 한국동서발전 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역임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등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감각과 경제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보유한 산업 및 에너지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 상근부회장은 “상의가 국민과 기업들이 친밀하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아울러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지원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HDC현대산업개발은 5·18역사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 입구에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왼쪽) 롯데건설 사룻데 봉사단과 등촌4중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이 친환경 텃밭 조성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가운데) 금호건설은 금여 결전을 통해 조성한 결식아동지원 후원금 1000만 원을 초록우산에 전달했다. 사진제공 각사

김상현 롯데 유통군HQ 총괄대표 임직원과 올림픽공원에서 ‘플로깅’



롯데 유통군HQ는 김상현(사진 앞줄 가운데) 총괄대표 부회장과 임직원들이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시티 플로깅(City Plogging)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티 플로깅은 도심지역을 뜻하는 시티(City)와 쓰레기를 줍는다는 플로깅(Plogging)의 합성어로, 도심지역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이번 시티 플로깅은 식목일과 지구의 날이 있어 ‘지구의 날’이라 불리는 4월을 맞아 환경 보호와 지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고객과의 약속 중 하나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이기도 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재활용 소재의 친환경 솔더백, 리사이클 목장갑, 생분해성 봉투, 집게 등을 갖춘 친환경 플로깅 키트를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 임직원들을 2개 조로 올림픽공원의 총 10km 구간을 2시간 동안 자유롭게 걷고 달리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롯데 유통군HQ는 향후 시티 플로깅을 시기별 테마에 맞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임직원 기부 물품을 활용한 플리마켓도 진행할 예정이다. 플리마켓의 수익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다.

문현호 기자 m2h@

10오버파 82타... 우즈 스코어카드 맞아?

마스터스 24회연속 컷통과 다음날 3R서 메이저대회 최악 스코어 더블보기 2개·보기 8개·버디 2개 “최종 라운드 잘 준비” 완주 밝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사진)가 메이저 대회 최악의 스코어를 적어내며 무너졌다.

마스터스 골프대회 24회 연속 컷 통과라는 기록을 썼던 우즈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파72)에서 열린 마스터스 토너먼트 3라운드에서 무려 10오버파 82타라는 ‘빅 넘버’를 스코어카드에 기록했다. 티샷, 아이언샷, 퍼트 모두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한 우즈는 더블보기 2개, 보기 8개를 쏟아냈고, 버디는 단 2개에 그쳤다.

82타는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기록한 최악의 스코어다. 이번 대회는 88회 마스터스이며 이날은 우즈의 마스터스 99번째 라운드였다. 1996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우즈는 이날 포함 80대 타수 점수를 다



섯 차례 적어냈으며 허리 통증에 시달리던 2015년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기록한 85타가 한 라운드 최악 스코어다. 마스터스만 보면 2022년 대회 3, 4라운드 연속 78타를 친 적이 있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는 2015년 메모리얼 토너먼트 3라운드에서 85타를 쳤다.

전날 마스터스 24회 연속 컷을 통과했을 때만 해도 우즈는 “우승 기회가 있다. 선두와 겨우 8타차밖에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대회 통산 여섯번째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우즈는 전날 2라운드에서 악천후로 마치지 못한 1라운드 5개홀 잔여홀 경기 등 총 23홀을 소화했다. 3라운드 4번 홀(파3) 보기를 5번 홀(파4) 버디로 맞바꾸었을 때만 해도 괜찮았다. 하지만 6번 홀(파3)부터 9번 홀(파4)까지 4개홀에서 무려 6타를 잃으면서 급격히 무너졌다. 7번(파4)과 8번 홀(파5)에서 범한 연속 더블보기가 뼈아팠다. 결국 우즈는 이날 전반 9개 홀에서만 42타를 쳤다.

우즈는 후반에도 4연속 보기를 하는 등 좋지 않았다. 우즈는 함께 11오버파 공동 52위로 밀렸다. 버디 2개에 보기 8개, 더블보기 2개가 나왔다. 1997년 대회에서 전반 40타를 친 적이 있었지만, 이때는 무려 12타차를 뒤집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우즈는 대회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즈는 “물리치료사인 콜비 툴리에 등 스태프들이 나를 잘 준비시킬 것이다”라며 “충분한 워밍업을 해 최종 라운드를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종욱 기자 onebell@·사진 로이터연합뉴스

한미약품 ‘젊은의학자학술상’에 연세대 의대 정선재 부교수 선정

한미약품은 한국여자의사회와 공동 제정한 ‘제6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수상자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선재 부교수(41·사진)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젊은의학자학술상은 한국여자의사회 회원 중 우수한 연구업적을 보인 45세 이하 의사에게 수여한다.

정 부교수는 국제코로나19연구네트워크(ICRN)의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비약물적 개입(NPI)으로 코로나19 발생과 사망률 감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 효율적 의료를 구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해당 연구는 92개 나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비약물적 개입과 위생용품 공급이 코로나19의 발생률과 사망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 연구 분야 국제 학술지(Journal of Medical Virology)에도 실렸다.



유혜은 기자 euna@

부음

학술원 회장 지낸 김상주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부총장, 대한민국의학원 회장 등을 지낸 김상주 서울대 명예교수가 13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학술원에 따르면 고인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학원(석사)과 서울대 대학원(박사)에서 금속 재료공학을 전공했다.

1956~1961년 국방부 과학연구소 연구관을 거쳐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뒤 공과대학장, 부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1996년 명예교수가 됐다. 그는 생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고문, 대통령자문 국민원로회의 위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및 원로회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5년부터는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했고 2008~2012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학술원 회장을 맡았다. 고인은 금속 재료학(1980), 금속확산론(1985), 물리야금

학(1990) 등 여러 저서를 펴내는 등 우리나라 금속 재료공학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영일 씨 별세, 서경아·현아·선아 씨 부친상, 장진모(교보생명 전무)·정지원(팔코나인 대표)·오근철(우리디앤티 부장) 씨 장인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 발인 16일 오전 5시 20분, 02-2257-7590

▲김상은 씨 별세, 박성득(전 정보통신부 차관·전 전자신문사 사장) 씨 부인상,

박세호(전 SK텔레콤 근무)·상호(KT 팀장) 씨 모친상, 최은경 씨 시모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2-2227-7556

▲성광옥(6·25 참전 화랑무공훈장 수훈자) 씨 별세, 김영애 씨 남편상, 성현경(미국 뉴저지 가스펠 펠로우십교회 담임 목사)·미경·제경(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씨 부친상, 박진욱(선교사) 씨 장인상, 이학희·김수정 씨 시부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02-3410-3151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강원대 명예교수
대학지성 논설교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이,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제22대 총선은 제2의 건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번 총선을 중시했던 이유다. 하지만 우파에게 안겨준 건 실망과 좌절이

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결과를 '성난 민심의 준엄한 심판' 또는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말한다. 민심이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한 투표자들의 부정적 태도다. 따라서 주목할 건 윤석열 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을 만큼 그들이 도덕적인가의 문제다. 후세의 정치사자들이 4·10 총선을 최악의 도덕성 선거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할 만큼 그 총선은 범죄자, 막말꾼, 투기범, 위선자 등에게 면죄부를 준 선거였다. 예를 들면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박정희가 위안부와 성관계' 등 사실에 근거 없는 천박한 언사와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았던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는 물론이고 심지어 천안함 46용사 유족들이 '망언 5적'으로 지목한 민주당 후보들도 대부분 당선됐다.

이름도 나르시시스트적인 '조국혁신당'의 부도덕성은 극치다. 비례대표 당선자 12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전과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이다.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

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며 거액의 수입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이번 총선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 또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
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
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
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있다. 각종 '사법 리스크'로 조사와 재판받는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당이 가볍게 의회의 과반을 휩쓸면 반면에 흡수저 출신 전문가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을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전멸시켰다는 점이다. 이들이야말로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지며 "자력으로 세상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아니던가!

이번 총선은 한국 사회에 도덕성이 붕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첫째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범죄자·협박자, 각종 위선과 막말이 드러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 총선이었다. 둘째로 보통 사람의 통상적 상식의 수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은 좌파의 멘탈은 무규범 상태(아노미)를 특징으로 한다는 논거가 될 수 있다. 면죄부를 주는 것 자체도 사실상 무규범 멘탈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노미적 상식 이하의 사람들로 구성된 새국회가 생산적 토론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될 게 틀림없다. 각종 특검법을 연속적으로 통과시킬 것이고 그런 일 다음 대선 때까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안보와 경제 부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일·종북·종중 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조국 대표도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자유와 시장을 그리고 한국·미국·일본 3각 동맹 강화를 기치로 내건 경제·안보 정책의 골격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아노미 상태의 무제한적 입법 독재에 대하여 전에 없이 매우 심각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반(反)민주당 세력의 자유우파 유권자-시민도 적지 않다.

트로이목마 '알테쉬'의 속셈

대륙의 실수? 이제 '실력'이다

'6641원.'

구글에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계획에도 없던 온라인 쇼핑을 시작한 건 순전히 저 가격 때문이었다. 꽤 괜찮아 보이는 플랫폼 사진 위로 '번개특가' 문구가 깜빡였다. 할인율은 무려 85%. 어디에 흘린 듯 '테무' 회원가입을 마치고 몇 켈레 아무지 게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미지랑 다르면 어떡하지' 마음 속 찝찝함은 '한 켈레 가격도 안 되는데 몇 번 신고 버려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에 밀렸다.

C-커머스 공세에 개인정보 도용 우려도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테쉬(알리·테무·쉬인)' 이용자 1500만 명. 국민 3명 중 1명이 'C-커머스(차이나+전자상거래)' 초저가 공세에 넘어갔다는 얘기다. 한국 상륙 약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짝퉁 피해가 속출하고 시장 초토화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대책 검토에 착수했지만 속수무책이다. 보다 못한 서울시도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놨다. 알리 판매 상위권 품목 31개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56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며 매주 유해성 제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현행법상 '정상' 제품을 판매하도록 C-커머스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테무와 쉬인이 통신판매업에 등록되지 않아서다. 유해성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실상 '치외법권'인 셈이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요청 중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읍소'를 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령 검토에 들어갔다. 설사 등록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또 다른 유해성 제품을 올리면 그만이다.

한국보다 C-커머스 공세를 먼저 경험한 해외에서 '불량' 상품보다 더 주목한 건 따로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CNN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인용해 테무의 모기업인 '핀뉘'의 수상한 점을 보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핀뉘 앱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사용자 개인정보와 온라인 활동을 추적할 뿐 아니라 알림과 메시지를 읽고 설정까지 변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누군가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뒷지

마감 후

김서영
사회경제부 차장



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최근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최고경영자(CEO) 저우서우즈는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 나와 미국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는 추궁에 '공산당과 무관하다'고 맹무새처럼 반복했다. 한국의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C-커머스의 '덤핑' 행위로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 물류망도 접수할 판이다. 수틀리면 경제보복을 일삼는 중국의 '읍소'를 고려할 때 낫 놓고 고을 일이 아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같은 일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 디젤 차량에 꼭 필요한 요소수는 경제성을 이유로 2011년부터 국내 생산이 중단됐다. 중국 공급 의존도가 97%를 넘어선 상황에서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조이자 교통 및 물류 대란 우려가 변했다.

중국 탈피한 공급망 확보 절실해져

이런 걱정까지 사서 해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아무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모든 시그널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향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몽' 시나리오에서 대만 통일도 마지막 퍼즐과 같다. 더 설득력이 있는 건 반도체 생태계 접수. 중국이 직면한 내외의 환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를 품고 있는 대만 장악이란 것이다.

미국 고위 관계자들도 공식석상에서 대만 유사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원하던 그렇지 않든 한국은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유사시 생필품 공급, 물류 네트워크는 생존과 직결된다. C-커머스의 무차별 진격을 해석하는 눈, 그 위험에 대처하는 힘이 절실해지고 있다.

보조배터리, 로봇청소기, 스마트폰을 만들던 샤오미가 전기차를 내놨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3년 만이다. 샤오미는 한때 애플의 '카피캣'이라고 조롱받던 업체다. 그랬던 샤오미가 애플이 프로젝트 10년 만에 포기한 전기차를 보란 듯 내놓으며 전기차 시장에 격변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샤오미가 내놓은 전기차가 값싼 보급형 제품이 아닌란 것이다. 샤오미의 첫 전기 세단 'SU7'은 프리미엄 중형 세단을 표방한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700km로 테슬라의 모델3(600km)를 뛰어넘는다. 고성능 맥스 트립의 경우 제로백(시속 100km까지 도달 속도)이 포르쉐 타이칸 터보(2.93초)보다 빠른 2.78초다. 프리미엄 세단임에도 가격은 기본 트림 기준 약 4012만 원에 불과하다.

글로벌 공세에 나선 중국 전기차 업체는 샤오미 뿐만 아니다. 지난해 4분기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판매량 1위에 오른 비야디(BYD)는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 무대로 진출하고 있다. BYD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글로벌 전기차 업계는 위

노트북 너머

강문정
산업부 기자



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전기차 업체의 해외 진출을 두고 "무역장벽이 확립되지 않으면 세계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을 거의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장벽을 높이고 나섰다. 그러나 유럽교통환경연맹(T&E)에서는 올해 EU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25%가 중국산일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관련 학과 교수는 "그동안 중국 전기차를 우습게 보던 업체들이 역풍을 맞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중국산 제품의 성능이 좋을 때 우리는 이를 '대륙의 실수'라고 부르곤 했다. 싸구려 취급하던 중국 제품이 우연히 좋은 성능을 가졌다고 비아냥거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수준의 품질까지 갖춘 중국산 제품이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이제는 '대륙의 실력'을 경계해야 할 때다. kangmj@

이투데이, 말투데이

☆ 에이브러햄 링컨 명언

"누구나 거의 다 역경을 견디어 낼 수는 있지만, 한 인간의 됴됨이를 정말 시험해 보려거든 그에게 권력을 쥐 보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미국 역사상 최초로 건국 당시 13주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대통령이자 공화당 출신 첫 대통령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키가 큰(193cm)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오늘 숨졌다. 1809~1865.

☆ 고사성어 / 시기소이(視其所以)

공자(孔子)가 사람을 관찰하는 3단계 방법이다. 한 사람이 하는 일에 그 목적과 동기 그리고, 성취와 만족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고 그 사람

이 걸어온 길을 살피고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만족을 느끼는지를 관찰한다면 그의 사람 됴됨이를 어디다 숨기랴, 그의 사람 됴됨이를 어디다 숨기랴[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
출전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 제10장.

☆ 시사상식 / 마천루의 저주(skyscraper curse)

초고층 건물을 짓는 국가가 이후 최악의 경기불황을 맞는다라는 가설이다. 1999년 도이체방크의 분석가 앤드루 로런스가 100년간 사례를 분석했다. 초고층 빌딩건설 프로젝트는 통화정책 완화 시기에 시작하지만, 완공 시점에는 경기 과열이 정점에 이르고 버블이 꺼지면서 결국 경기불황을 맞는다라는 것이다. 1930년과 1931년 미국 뉴욕에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질 무렵 세계 대공황이 시작됐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금리인하 신중론 커지는 미국

지난 2022년 초부터 미 연준은 11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재 금리는 작년 12월 정점을 찍은 후 5.25~5.5%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낸 후 시장은 언제부터 금리가 내려갈지에 관심을 집중했다. 여기에 고금리에 시달리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기대도 한껏 고조되었다.

그러나 연준의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의 하락 속도는 더디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다. 3월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하여 2월의 3.2%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 올해 1~3월 수치는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2%로 내려갈 것인지에 의문을 가진다.

여기에 3월 발표된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3월에만 약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되며 노동시장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그 결과 실업률은 3.9%에서 3.8%로 떨어지며 매우 안정적이다. 정체된 인플레이션 하락세와 견고한 노동시

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경제의 성장세가 견고하면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줄어든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놀랄 만큼 활기를 띠자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몇몇 연준 관리들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다. 대신 그들은 경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연준은 올해 초에 예상한 대로 금리를 세 번 이상 인하할 것인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차입 비용이 늘어나 경제는 약세를 보인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경제가 현재와 같은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주요 기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상향하고 있

논현로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



다. 이런 상황은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던 연준 관리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당초 연준은 올해 세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5~4.75%로 내릴 예정이었다. 예고한 대로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6월이나 7월에 첫 번째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이런 계획에 변화가 발생했다. 19명의 연준 위원 중 9명이 올해 2회 이하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것이다.

이제 시장은 올해 금리가 0.25%씩 두 번만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황에 따라 최대 6회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연초와 비교해 급격한 반전이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까지 내다본다. 만약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견고하고, 소비 지출과 GDP 성장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은 계속 커질 것이다.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하락 경로에 들어설 때까지 금리 인하 시기를 미룰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가 튼튼한 상황에서 선부른 금리 인하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금리 인하는 소비자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낮춰 가계 지출 확대와 기업 투자를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그러나 연준이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만약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물가가 반등하면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미국 경제는 바이든의 재선 캠페인에 나쁠 게 없다.

인플레 여전하고 노동시장도 좋아 성장률 높아지자 금리인하 딜레마 선거앞둔 바이든 모험하지 않을듯

사설

중동 불길, 경제·안보에 미칠 파장 폭넓게 살펴야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열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안보·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점검하는 긴급회의였다고 한다.

앞서 13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지 12일 만이다. 이란은 200발 넘는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방공체계) 포대가 요격해 큰 피해는 면했다고 한다. "99%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당국자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심야 공습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해 이란에 대한 어떤 반격도 반대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공습 피해가 미미했던 점을 들어 "이스라엘은 승리로 여겨야 한다"고도 했다.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중동의 불길이 커지는 사태를 경계한 것이다. 불길의 확산을 우려하는 것은 미국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낙관은 어렵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사상 처음이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한 번도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지 않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내 하마스 소탕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이란을 상대로 보복에 나선다면 50년 만에 제5차 중동전쟁의 서막이 열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장기화로 그러잖아도 어지러운 국제 지정학이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의 수출국인 우리로선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중동 정세는 국제유가 측면에서부터 초대형 약재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 배럴당 평균 가격은 1월 78.9달러, 2월 80.9달러, 3월 84.2달러로 명확히 우상향 추세다. 뉴욕상업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12일 기준)까지 치솟았다. 브렌트유가 92달러를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중동 산유국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더라도 한다면 악몽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이곳을 지난다. 한국은 이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중동 유종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해운 업계와 석유를 원료로 쓰는 석유화학 업계 등 산업 부문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우리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파도에 휩싸여 있다. 중동 상황이 잘못 풀리면 더 큰 충격파가 가해질 수 있다. 부진한 내수 소비가 더 위축되면 민생고가 얼마나 가중될지 알 수 없다. 컨틴전시플랜을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안보 파장도 유념할 일이다. 동북아 지정학의 위기 지수가 중동 불길과 함께 치솟을 수 있다. 중동 리스크가 미국의 동맹국 방어력 분산으로 귀결될지도 모른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도 심상치 않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란이 뿜어낸 불길이 어떻게 번질지 폭넓게 살펴야 한다. 치밀한 외교·안보 대응을 당부한다.

'중처법' 대비, 산업안전대진단 활용을

기고

유병순
철한정화기업 대표



작은 회사를 운영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은 점차 안정되어 가지만 마음 한쪽에는 한 가지 걱정이 쌓여갔다. 오랫동안 같이 일한 직원들이 혹여나 일하다가 다치거나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에는 지인의 사업이 번창한다는 소식에 더 큰 사업 욕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뿐이었다.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하는 회사를 더욱 안정되고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하지만 신문과 방송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나의 바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직원 중에 자칫 잘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사장이 처벌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대비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10분 만에 사업장 안전진단·해결책 제시

문제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바로 회사로 배송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공문 덕이다. 산업안전을 위해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해봐야 한다. 사업장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인 것이다.

사업장의 안전을 간단히 자가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관리직원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불임자료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온라인으로 진단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진단 과정은 간단했다. 우리 사업장 현황을 체크하고 결과를 입력하는 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진단 결과는 부족한 분야별로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되어 나왔다. 회사가 작다 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조목조목 안내해 주는 느낌이었다. 더군다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 사업 신청을 받을 수도 있었다. 직원과 상의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신청 버튼을 눌렀다.

며칠 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사업장을 방문해서 신청한 사업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다. 방문했던 공단 직원은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안내해 주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안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안내였다. 경영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공단 직원의 친절한 안내 덕에 심적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었다.

재정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일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있었지만, 지원받는 금액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재정지원은 정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가 좀 더 필요해서 실무 담당자가 확인하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간과 예산 들여 하나씩 문제점 해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다. 이번에도 큰 도움을 통해 작은 장애물 하나를 넘어선 느낌이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다. 우리 회사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해결책을 알게 되니 속제는 생겼지만 길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앞으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혹 시라도 우리 회사와 같은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보길 적극 추천한다. 방법은 쉽다. 인터넷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검색만 하면 된다.

노무, 특!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노동청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니 규정을 하나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어쩔지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노사협의회 구성 계획에 대해 물으니 "협의회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가 강제된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할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 설치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때에는 벌칙(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그 외에도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발언권을 갖게 되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염려는 이해할 만하다. 경영권에 대한 침해와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마찬가지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

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름다운 이상향을 제시하였으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이 경영자, 근로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결사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당사자들의 참여, 소통, 협력은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기술이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산업환경에서는 기업 구성원들의 창의성 발휘가 기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불만은 정보 부족, 소통 채널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길 바란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시에 바라는 게 있나요?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주면 좋겠네!"

Q. 더 건강해지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A. 그렇제! 하고 싶은 일 더 맘껏 하려고

성수동 '요가쌤'
64세 최영아 님

LG의 시와 바이오 기술이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